

성경 목차

구약성경 오경	신약성경 복음서
창세기	마태오 복음서
탈출기	마르코 복음서
레위기	루카 복음서
민수기	요한 복음서
신명기	사도행전
역사서	사도행전
여호수아기	서간
판관기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룻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사무엘기 상,하권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열왕기 상,하권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역대기 상,하권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즈라기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느헤미야기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토빗기	티모테모에게 보낸 서간
유딧기	티토에게 보낸 서간
에스테르기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마카베오기 상,하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시서와 지혜서	야고보 서간
욥기	베드로의 서간
시편	요한의 서간
잠언	유다 서간
코헬렛	묵시록
아가	요한 묵시록
지혜서	
집회서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쿱서	
스바니아서	
하카이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 창세기

구약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는 본래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합쳐져 있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유대인들이 다섯 두루마리로 나누어 ‘오경(五經)’이라 불렀습니다. 오경의 또 다른 히브리 이름은 ‘토라’예요. 우리말로로는 흔히 ‘율법서’라 옮기지만, 좀더 정확한 뜻은 ‘바른 가르침,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동양사상에서 중요한 ‘도(道)’라고 할 수 있지요. 창세기는 오경 또는 토라의 첫째 권입니다.

1) 창세기란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이름은 “브레싯(한 처음에)”입니다. 이 책을 그리스말로 옮긴 70인역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게네시스(기원, 시작이란 뜻의 그리스말)”인데, 이 이름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창세기(創世記)란 이름도 이 그리스말 이름을 한문으로 옮긴 중국어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상 지어질 때의 기록’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2) 언제 씌어졌나요?

어느 책이 언제 씌어졌는가를 알면 그 책의 배경을 좀더 잘 알 수 있겠지만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오랜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여러 민족들의 창조 이야기가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바뀌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이 기원전 10세기부터 조금씩 글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면서 더 분명한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보는 창세기는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를 다녀온 다음인 기원전 400년경에 책으로 엮어지게 되었습니다.

3) 누가 썼나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창세기는 모세가 직접 써서 전해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경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과 그분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오경을 주의깊게 살펴본 결과 글투나 사용한 단어, 시대배경 등이 각기 다른 여러 글이 모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이 엮은 책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그 저자나 편집자들이 다 모세라는 뛰어난 사람의 권위에 입각해서 썼기 때문에, 여전히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4) 왜 썼나요?

창세기에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 및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현대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기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신앙 안에서 성찰한 내용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본 창세기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요. ① 하느님은 나를 비롯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②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나, ③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여 다시 인간과 화해하려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신앙고백입니다.

· 탈출기

탈출기는 창세기에 이어 구약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땅으로 데려가시는 주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담겨 있지요. 모세오경과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성경으로 '구원의 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탈출기란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출기에 '브엘레 쉬모트(이름은 다음과 같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탈출기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그 책의 첫 단어로 책이름을 짓는 이스라엘 관례에 따라 붙여진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말로 구약성경을 옮긴 70인역 성경은 책의 주제를 중시하여 이 책의 이름을 '엑소도스(탈출)'로 정했습니다.

2) 누가 썼나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오랫동안 모세가 탈출기를 썼다고 믿어 왔는데, 모세가 한 일이 탈출기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탈출기에 서로 겹치거나 부분적으로 엇갈리는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책은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여러 차례 편집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탈출기는 많은 사람의 공동작품인 셈이지요. 물론 그 모든 이를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3) 언제 쓰여졌나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쓴 사람이 여럿이듯, 기간도 긴 세월을 걸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탈출기 사건이 있던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체험담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0세기 경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인 기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저자가 이 내용을 또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여져 편집되고 최종적으로 오경이 이루어진 때는 기원전 400년 경입니다.

4) 왜 쓰여졌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탈출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썼을까요? 신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탈출기 사건은 기원전 13세기 경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역사를 전해 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만난 주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과 일러주신 율법에 따라 탈출기를 읽는 각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속된다는 신앙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느님께서 해주신 탈출기 사건이라는 큰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 레위기

창세기와 탈출기에 이어 나오는 책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지켜야 할 각종 규정과 지침들, 특히 각종 제사의식 등 전례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는 오경의 셋째 권인데, 그렇기에 앞 뒤에 있는 탈출기 및 민수기와 연결시켜 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레위기란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이 책의 히브리 이름은 첫 단어인 “와이크라(그리고나서 부르셨다)”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책의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는 책의 주제를 고려해서 성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란 이름은 사제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예배와 규정을 다룬 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지요. 이 이름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제목이 널리 퍼졌습니다.

2) 누가 썼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써서 전해주었다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학자들은 레위기도 오경의 다른 책처럼, 예전부터 구전이나 문헌으로 내려온 자료들이 시대에 따라 덧붙여지고 편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최종적으로 이 책의 꼴을 잡은 이들은 사제들이었을 것입니다.

3) 언제 썼나요?

안타깝지만, 이 시기도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레위를 꼼꼼히 읽어 보면, 시기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초기 자료도, 왕정시대의 자료도, 유배 이후의 자료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어느 한 때에 다 쓰여진 것은 아닌 셈이죠. 레위가 완성된 꼴을 갖춘 시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 400년경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어요.

4) 왜 쓰여졌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읽기 곤란하고, 읽어도 재미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성서로 꼽는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레위가 꼽힐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시된 성경인 오경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중시하여 예법을 발전시켜 왔듯이, 유대인들은 주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일찍부터 제사 드리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자,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각종 제사의식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전례서라 할 수 있는 레위는 형식적인 제사 규칙을 담은 규정집이라기보다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길(이것이 오경, 즉 토라의 근본정신)을 제시한 성경으로 쓰여진 것이지요. 그리스도교의 전례도 바로 그런 길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민수기

민수기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에 이어 나오는, 오경의 넷째 권입니다. 앞선 성경에서는 창조 이야기와 성조들의 이야기에 이어 탈출기 사건과 광야 이야기, 시나이 계약과 각종 율법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다면 민수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1)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유대인들이 오경 각 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첫 단어로 지었던 방식으로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도 처음에는 첫 단어인 “와예다벨”(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이었습니다. 그러다 좀 더 후대에 와서는 첫 문장의 다섯 번째 단어인 “브미드발”(광야에서)을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은 이 책에서 여러 번의 인구조사, 장정과 성소집무자, 희생제물수 등의 숫자에 주목하여 책이름을 “아리트모이”(숫자들)라고 불렀고, 그 뒤에 나온 성경들도 이 이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도 ‘민수기(民數記)’라 지어졌고, 우리말 성경 이름도 자연스럽게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의 전체 내용에서 숫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성경 이름은 ‘광야기’일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 언제 어떻게 쓰여졌나요?

오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민수기에도 아주 옛날 노래부터 유배시대의 자료까지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는 물론 후대에 그 체험을 되새긴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에게 의해 기록되고 모아지면서 정리되어 오경으로 묶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제들이 바빌론 유배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맡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민수기를 왜 썼을까요?

민수기에는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어지는 각종 율법 규정들과 함께 시나이 광야에서 모압평원에 이르는 광야 체험기가 실려 있습니다. 탈출기의 광야 이야기와 달리, 민수기의 광야 체험기에는 하느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하느님을 시험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물과 양식을 주시며 인도하시지만, 계속 불평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처벌하시기도 합니다. 그 결과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중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민수기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느님께 대항하는 ‘목덜미가 뺏뺏한’ 사람들은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음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거듭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원목적을 이루어가심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언제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당신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울러 하느님과 백성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에 고뇌하는 모세를 부각시키며 참된 지도자의 모습과 그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신명기

1) 신명기란 성서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본래 히브리인들이 지은 신명기 이름은 책의 첫 구절인 “엘레 하 드바림(이것은 …… 말이다)”, 또는 줄여서 “드바림”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은 이 책을 “듀테노미 온”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지요. 아마도 그 번역자들은 이 책이 앞의 책에 나온 율법들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 성경도 70인역 성경의 취지를 따라, “하느님의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쓴 책”이란 뜻을 담은 ‘신명기(申命記)’라 지었고, 우리말 성경도 그 이름을 그대로 옮겨서 신명기라 부릅니다.

2) 누가 언제 썼나요?

신명기의 저자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는 오경의 첫 네 권과는 다른 저자가 쓴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명기는 여호수아서,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서-흔히 신명기계 역사서라 부름-의 첫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긴 역사서를 썼는가? 그들의 정체는 분명치 않지만, 학자들은 편의상 ‘신명기 사가’ 또는 ‘신명기 학파’라 부릅니다. 그들이 신명기에 처음 손댄 때는, 신명기를 꼼꼼이 살펴볼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 유다는 존속하고 있었던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새롭게 세우려는 선각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한 번에 다 쓰이지 않고 여러 차례 손질되면서 확충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완성되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으로 묶여진 때는 기원전 5-4세기경입니다.

3) 왜 쓰여졌나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거쳐오면서 행한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간곡하게 타이르지요.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 위기에 처할 때에도 탈출기 사건의 주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이 일러주신 말씀과 율법을 준수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명기는 이스라엘 율법의 최고 권위자인 모세의 입을 빌려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광야 세대뿐 아니라 후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4) 신명기는 왜 중요한가요?

첫째, 오경의 한 부분이자 총정리하는 글이기에 오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말했듯이 신명기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머리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명기는 신약성경에서 83회나 인용될 정도로 아주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신·구약성경을 잇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여호수아기

여호수아란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짧게 줄여 예수아 또는 요수아, 호세아라고도 부릅니다(그리스말로는 ‘예수스’가 됩니다). 눈의 아들로 태어나(민수 14,30) 모세의 총직인 시종으로 활동하였습니다(탈출 17,8-16 참조). 또한 갈렙과 함께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였고 모세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1) '여호수아'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나요?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 지파별로 분배 받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으로서 역사서, 또는 전기 예언서의 첫째 권입니다. 이 책의 전승상 저자와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 모두 그의 이름을 책이름으로 삼았습니다.

2) 누가 썼나요?

유다교와 교회의 전승에는 여호수아를 저자로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죽음 기사나 같은 내용이 두세 차례 반복되는 걸 볼 때, 여호수아가 쓴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 성서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즈음 학자들은 전승해 온 여러 자료를 한데 모아 여호수아기를 체계적으로 엮은 이들이 그 뒤에 나오는 판관기, 사무엘서와 열왕기까지 모두 엮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신명기를 저술 편집한 사람들과 같은 계보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흔히 ‘신명기계 역사가’라 부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언제 쓰여졌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시기는 대략 기원전 1200년경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덧붙여지고 기록된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아마도 기원전 7세기경에 풀이 잡혔고 바빌론 유배 이후인 기원전 5~4세기경에 최종 편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4) 왜 썼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늘 기억하고 갈망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지리라 첫 번째 약속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은 여호수아기에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며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신뢰와 충실 여부에 따라 그 약속의 실현이 늦추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지요.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여호수아서는 당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남 유다에, 또 멸망하여 실의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따라 살면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보여줍니다. 그 외침은 오늘의 하느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유효합니다.

· 판관기

판관기란 가나안 땅 정착으로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흔히 “판가름하는”(판관 11,27) 일을 한다고 해서 판관이라 부르지만, 재판관이란 뜻보다는 통치자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학자들은 판관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외적 공격이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는 군사지도자, 또는 구원하는 영웅으로서 대판관이라 부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다스리는 이로서 소판관이라 부릅니다. 이 책에는 12명의 판관에 관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 판관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판관기는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둘째 권이기도 합니다.

1) 누가 썼나요?

민족의 위기를 극복한 뛰어난 영웅이나 용사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민족에게나 설화나 민담 등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시일을 거쳐 여러 사람에게 의해 다듬어지고 보완되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에 활약한 여러 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왕정시대에 이르러 하나 둘 모여져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묶음을 전체적으로 편집하여 현재의 판관기로 엮은 이들도 ‘신명기계 역사가’입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왕국 설립 전까지 겪었던 여러 차례의 이민족 지배와 그로부터 해방된 체험은 신나는 민담으로 계속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다 기원전 9세기경에 책으로 쓰여졌고, 나라가 위태롭던 기원전 7-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다듬어져 바빌론 유배 후인 기원전 5세기경에 오늘날과 같은 꼴이 잡혔습니다.

3) 왜 썼나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자손이 불어나 백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써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느님만을 예배하는 참신앙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든 이스라엘은 그 잘못으로 이민족의 억압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탈출기 이전의 상황과 똑같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억압이 심해 울부짖으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백성을 이끄는 판관을 세워 해방시켜 주셨음을 판관기는 계속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결국 판관기는 옛날 옛적 판관시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관기는 하느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역사적 체험(판관시대부터 바빌론 유배까지)을 바탕으로 하느님만을 섬기길 호소하는 신앙의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판관들도 한낱 잘난 영웅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기에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민족의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또 오늘날에도 하느님을 알고 바로 섬겨야 공동체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된다는 진리를 전해 줍니다.

· 룯기

룯기는 판관기 다음에 나오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4장밖에 안 되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인 룯기는 여주인공인 ‘룯’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룯기가 판관기 다음에 나오지만, 그 내용이 판관기와 이어지거나 전기 예언서에 속하지는 않아요. 단지 룯기가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룯기 1,1) 있었던 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과 불가타 성경에서 룯기를 이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룯기와 아가, 애가, 에스테르기, 코헬렛 등 다섯 권을 큰 축제 때 읽는 성경이라 하여 ‘축제 두루마리’라 부릅니다. 그 중 룯기는 밀 수확 축제인 오순절에 읽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유대 전승에서는 예언자 사무엘이 룯기를 썼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느 저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담을 바탕으로 하여 아주 짧은 단편소설로 룯기를 지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의 삶과 하느님의 사랑에 민감하고 글을 꽤 잘 엮는 뛰어난 작가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2) 언제 썼나요?

이야기의 기원은 오래 되었겠지만, 실제 저술시기가 언제인지는 논란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 보면 크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정시대의 초반, 또는 중반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룯기가 다윗 왕조의 집안 이야기로 쓰여졌다고 하는 주장이지요. 또 다른 이들은 바빌론 유배시기 때 아니면 그 이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이방 여자인 룯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만민 구원이란 틀이 엮보인다는 것입니다.

3) 왜 썼나요?

룯기는 짧지만 즐거리가 탄탄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룯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들의 친족인 보아즈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고부간인 룯과 나오미의 깊은 사랑입니다. 룯은 남편과 자녀도 없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 청상과부요 이방여인이었지만, 기꺼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다 땅에 와서 열심히 봉양합니다.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나이든 이의 지혜로써 무던히 애를 쓰는데 그런 나오미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룯기의 흐름속에서는 과부를 돌보고 친족을 보살피며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과 그분의 섭리입니다. 글 중에 하느님은 직접 출현하지 않지만, 이야기의 모든 단계마다 그분의 축복과 이끄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느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 품에 안기는 이들을 항상 돌봐주시며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빈털털이 이방여인을 다윗 왕의 증조모요 메시아 집안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 사무엘 상,하

사무엘기는 룯기 다음에 나오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판관기에서 이어집니다. 즉 판관 시대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과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사울과 다윗왕의 이야기가 실려 있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기 앞부분의 중심인물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삼았는데, 그리스어 성경은 본래 한 권인 사무엘기의 분량이 너무 많아 사울의 죽음을 끝으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기는 여호수아, 판관기, 열왕기 상,하권과 함께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1) 누가 썼나요?

유대의 탈무드 전승에서는 “사무엘의 역사서”(1역대 29,29)에 근거하여 사무엘이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의 죽음이 두 번이나 기록된 것으로 보아(1사무 25, 1; 28, 3) 사무엘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탈무드는 사무엘의 죽음과 그 이후 내용은 예언자 나단과 가드가 써서 사무엘의 역사서에 덧붙였다고 밝히지만, 이 역시 근거가 약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옛부터 전해오는 법궤 설화와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간 이야기 등 주요한 전승들을 바탕으로 신명기계 사가가 편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강조했던 그들의 견해가 사무엘서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언제 썼나요?

사울이나 다윗의 이야기의 어떤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당대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썼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골격을 이루는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부터 전해오는 여러 전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승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서 하나의 연속적인 결정본으로 만든 이는 바빌론 유배 시기에 활동한 신명기계 학파입니다.

3) 왜 썼나요?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왕정체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변혁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혁기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이 제시됩니다. 이 때 나타나는 계층이 사무엘로 대변되는 예언자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이지요. 이스라엘도 주변 민족처럼 왕정체제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왕국의 모습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왕은 절대자가 아니라 주 하느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예언자는 이를 늘 왕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전히 하느님이시니까요.

사무엘기는 이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으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조는 몰락하였지만, 늘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다윗은 든든히 서리라는 약속을 받게 되지요. 결국 사무엘서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역사의 격변기에서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지요.

· 열왕기 상,하

열왕기(列王記)는 말 그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재위했던 왕들과 그들의 역사가 실려 있지요. 사무엘기와 마찬가지로 열왕기도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스어 성경에서 아합의 죽음까지 잘라 두 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이미 앞에 나온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기와 함께 묶여서 '전기 예언서' 또는 '신명기계 역사서'라 불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정복에서부터 멸망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잃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유다교의 탈무드 전승에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썼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은 모두 모세, 시편은 다윗, 지혜문학은 솔로몬 하는 식으로 성경을 권위를 가진 특정인에게 모두 연관시켰던 후대 유다교의 한 경향을 나타낼 뿐입니다. 열왕기는 이미 전해온 사료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를 하나로 체계화시켜 편집한 이는 신명기계 역사가입니다. 그(들)은 주로 바빌론 유배시기에 활동한 인물인데, 특별히 야훼 신앙에 투철했다고 여겨집니다.

2) 언제 썼나요?

안타깝게도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이나 주변 국가의 연대기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왕의 제위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것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전해오다 현재와 같이 하나로 정리된 시기는 아마도 바빌론 유배시기나 그 이후일 것으로 봅니다.

3) 왜 썼나요?

열왕기는 역사서이지만, 현대의 역사서같이 '사실'을 비판적으로 정리 기록한 그런 역사서가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정리된 '신학적 역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시기를 겪은 그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한 까닭을 신앙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찾았습니다. 즉 그는 주 하느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역사의식을 갖고 자기네 역사를 되돌아보았던 신명기계 역사가였습니다. 아울러 그 역사 중에 하느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어 하느님의 능력과 성실하심도 알려줍니다.

열왕기를 유심히 보시면 각 왕들의 치적이 일정한 도식으로 반복해서 기술되어 있으며, 요시아 왕이 가장 칭찬받는 반면 므나세 왕이 가장 나쁜 평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은 정치·경제적 역량이 아니라 야훼 신앙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열왕기는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분만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다시 하느님 공동체를 회복하여 잘 사는 길임을 바빌론 유배시기의 동족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대에도 진짜 중요한 것은 국력의 신장보다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분 말씀에 따르는 올바른 삶을 일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역대기 상,하

1) '역대기'라는 성서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요?

히브리어 역대기는 본래 한 권이었고, 그 이름은 “다브레 하야밈”(그 때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솔로몬 왕의 즉위를 중심으로 이 책을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으며, 또한 이 책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쓰여진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아 그 이름을 “파랄레이포메나”(빠진 사항들)라고 지었습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도 처음에는 그리스어 성경 이름을 쓰다가 곧 예로니모가 주해에서 붙인 “하느님 역사 전체에 관한 역대기”라는 긴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줄인 “역대기”(歷代記)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성문서’편에 속하며, 판관기-열왕기에 이르는 신명기계 역사서와 구별하여 에즈라-느헤미야서와 함께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불립니다.

1) 누가 썼나요?

탈무드 전승에서는 에즈라가 시작하여 느헤미야가 역대기를 끝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빌론 유배생활에서 돌아와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공동체를 하느님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열망이 뜨거웠던 학자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모세오경과 여호수아기, 열왕기 등의 성경 이외에 스무 가지가 넘는 역사서를 참고하여 이 성경을 엮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뚜렷하게 부각시켰지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 사람을 흔히 역대기 사가, 역대기 편찬인이라 부릅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정확한 집필시기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역대기 사가가 신명기계 역사서를 바탕으로 하고 전해 내려온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썼고, 그 뒤로는 여러 차례 가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4세기나 3세기쯤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3) 왜 썼나요?

역사서는 이전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과 비전을 던져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유배시기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역대기는 새로운 꿈과 용기를 던져주려고 합니다. 역대기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조, 특히 다윗 왕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번창했던 다윗 시대의 역사를 부각시키면서 보잘것없는 현재 상태에서도 힘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역사상의 다윗이라기보다 이상적으로 그려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주 하느님께 지극히 성실했던 다윗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충실히 하느님을 섬기면, 계약에 충실한 하느님께서 다시금 공동체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불어넣고 키워주려는 뜻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올바르게 지키는 예배 공동체가 유배시기 이후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도 함께 지시하고 있습니다.

·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1) 에즈라,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유래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두 권이 '에즈라'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에는 이 두 권에다 두 권을 덧붙여 '에스드라서'라 불렀습니다. 불가타 성경도 에스드라서 1,2,3,4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뒤에 각기 주인공의 이름을 따 에스드라서 1권은 '에즈라'로, 2권은 '느헤미야'로 이름지어졌고, 3권과 4권은 외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에즈라-느헤미야서는 '성문서'편에 속하며, 역대기 상·하와 함께 역대기계 역사서로 불립니다.

2) 누가 썼나요?

탈무드 전승에서는 에즈라가 역대기와 에스드라서 앞 부분을 썼고, 느헤미야가 여러 자료를 덧붙여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즈라를 유력한 저자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사가 또는 역대기 편찬인이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남긴 자료와 그 밖의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저술하고 편집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 편집자(들)은 유배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느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백성 공동체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 갖은 애를 썼던 레위족 사람일 것입니다.

3) 언제 쓰여졌나요?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460년경부터 380년경이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전에 나온 자료와 에즈라-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진 편지, 칙령, 수기 등 각종 자료를 담아 기원전 350-300년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해요.

4) 왜 썼나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빌론 유배시기 이후 시대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시켜주어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미 팔레스티나 땅은 다른 주변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없으니 경제생활은 빈곤하고 자기를 지킬 힘도 약하니 주변민족들로부터 수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참으로 회개하여 어떤 어려움에서도 참되게 하느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생존에 급급하면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에즈라-느헤미야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좌절, 그러면서도 새롭게 제의 공동체로 일어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로 다윗 왕가의 충실한 신심과 제의의 회복을 강조했다면,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와 함께 율법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지도한 것처럼, 하느님께 받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단과 성전, 도시를 재건하고 사회경제적 체제를 갖추는 것, 우상숭배를 배척하며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교는 오늘날까지 그 틀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빗기

토비트는 제2경전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비 1,1)이라고 책 첫머리에 밝혀져 있는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납탈리 지파 사람 토빗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라 그 이름을 따서 책이름이 붙여졌 습니다. ‘토빗’은 ‘하느님은 나의 선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 고 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는 선한 행동을 해 왔던 토빗의 성품과, 하느님의 선하신 배려로 눈을 뜨게 되었음을 잘 나타내 주는 이 름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유대인 중의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 니다. 사마리아인이니, 사두가이파 사람이니, 꿈란 공동체의 일원이니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학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필 장소에 대해서도 이 집트, 페르시아, 메대, 아시리아, 팔레스티나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2) 언제 썼나요?

책 내용은 기원전 7세기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지리적인 위치나 역사적인 인물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기원전 7세기나 5세기경에 집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 율법’이나 ‘모세의 책’(토비 6,13; 7,11. 12. 13)과 같은 구 절은 역대기(2역대 23,18)가 작성된 이후에나 가능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토비 13,9-18; 14,5-6) 토빗기 저자가 기원전 1 세기 말에 헤로데에 의해 완공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 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기원전 1세기에는 거의 통용되지 않았던 친족간의 결혼을 강 조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원전 3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느님께서 끝 까지 돌보아 주심을 일깨우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 죽 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민담에서부터 악령에 사로잡힌 신부 이야기, 모함에 빠졌다가 헤쳐나오는 충신설화 등을 모티브로 삼아 어떠한 상황 에서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주고자 했습니다. 모 세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첫 수확물과 가축의 말배와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바쳤던 토빗을 본으로 삼아, 죽은 이들을 묻어 주고 고아 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해도 시련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으로 써, 부유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 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임을 또한 일깨우고 있습니다.

· 유딧기

1) 유딧은 어떤 책인가요?

유딧은 제2경전 중에서 토빗기 다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아시리아군에게 포위당한 요새 베툴리아를 구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주인공 유딧의 이름을 따서 책이 붙여졌습니다.

2) 누가 썼나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시하고 성전과 연관된 각종 희생제사와 봉헌물을 강조하며, 기도과 단식 등의 제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보아서는, 마카베오 시대에 시행되었던 바리사이즘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중심이 팔레스티나에서 펼쳐지고 그곳의 지리가 다른 곳의 지리보다 정확한 것을 보면, 팔레스티나에 사는 바리사이가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언제 썼나요?

유딧서 안에는 헬레니즘적인 요소가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어요. 화환이나 올리브로 만든 관을 쓰는가 하면(3,7:15,13), 식사할 때에도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12,15). 왕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왕에게 예배드리기도 합니다(3,8).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사제가 정치적·군사적인 권력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4,6), 예루살렘 원로들이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4,6,8; 11,14)에서 마카베오 시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대한 예루살렘의 태도가 우호적이며(4,4,6), 사마리아 일대에 우상숭배가 완전히 뿌리뽑혔다고 단언되는 것(8,18-20)을 보면, 기원전 107년 그리짐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유다의 통치권 아래에 편입시킨 요한 히르카누스 1세(기원전 135-104)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안네우스(기원전 103-78) 시절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학살된 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전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두가이파나 에세네파에 반대하는 듯한 내용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리사이즘이 형성되던 초기 시절에 해당되는 요한 히르카누스 시절에 집필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3) 왜 썼나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으로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비상한 노력과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종교 박해에 맞서 싸운 결과로 생겨난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러한 희생은 그 어느 때 보다는 절실했습니다. 강대국 안에서 벌어진 패권다툼을 잘 이용해서 유다 왕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이 절박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방인 군대에 포위되어 함락될 날만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베툴리아 주민들을 구해내기 위해, 일신상의 작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던 유딧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 에스테르기

1) 에스테르기는 어떤 책인가요?

에스테르기는 역사적 배경을 빌어 유다인의 꿈 같은 소망을 그린 일종의 역사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에스테르인데,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제2경전'에 실려 있는 에스테르기의 단편은 110절에 달하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고 그리스어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테르기는 히브리어 성경 분류상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룻기, 아가, 애가, 코헬렛과 함께 축제 때 읽는 이른바 '축제오경'에 속하는 성경이지요. 에스테르기는 부림절에 임혀졌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컨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다 공동체의 일원이 부림절의 근거로 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꾸몄을 것이라 봅니다. 제2경전을 덧붙여 에스테르기의 종교적 의미를 두드러지게 한 이는 다소 세련된 그리스계 유대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에스테르기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에스테르기는 페르시아 시대가 아닌, 그 뒤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지요. 또 마카베오 시대에 유대인들이 '모르드개의 날'을 지낸 사실이 언급된 것(2마카 15,36)을 보면, 기원전 50년경에 부림절 축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에스테르기는 기원전 2세기 전반부에 씌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에스테르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유다 중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에스테르기에는 하느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부림절이라는 이방인 축제가 부각되어 있기도 하지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정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에스테르기를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몹시 치열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테르기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에스테르기의 작가는 페르시아의 신년축제 설화 등 주변 이야기를 이용하여 부림절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교 사회에 사는 유대인의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소설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하느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사 안에서 당신이 예비하신 사람들-에스테르와 모르드개 같은 이-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고 참회하며 기도하면(4,1-3.16), 하느님은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4,13-14)는 것이 에스테르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 마카베오기 상,하

1) 마카베오기는 어떤 책인가요?

마카베오기는 제2경전 중에서 바룩 다음에 나오는 책으로, 구약성경의 맨끝에 위치한 책입니다. 마카베오는 마따디아의 한 아들의 이름입니다.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박해에 맞선 종교항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중심 인물로서 그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마카베오 하권은 유다 마카베오의 항쟁을 중심으로 엮여졌지만, 상권은 마카베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마따디아를 비롯하여 마카베오 사후에 종교항쟁을 함께 이끌어 갔던 형제들의 이야기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유다 문헌에서는 마카베오 상권을 이들 가문의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2) 누가 썼나요?

한 사람이 마카베오 상·하를 모두 쓰지는 않았습니다. 마카베오 상권은 시몬의 아들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식적인 역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 가문의 확립과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하스모니안 왕조를 적극 지지한 사람이 히브리어로 썼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히브리 관용어가 자주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카베오 하권은 북부 아프리카의 키레네 출신 야손이 다섯 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후대 사람이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를 언급하면서도 시몬을 좋지 않은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2마카 10,18-22; 14,17-19)을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그리스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어 문장 실력이 대단한 것으로 보아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또한 추정됩니다.

3) 언제 썼나요?

마카베오 상권은 시몬이 죽은(기원전 134년) 이후, 로마에 의해 함락되기(기원전 63년) 전에 쓰여졌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 기원전 10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로마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권의 자료로 사용된 야손의 책은 유다 마카베오의 행적만을 전하고 있어, 늦어도 기원전 160년(유다가 전사한 해)경에는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실려 있는 편지(2마카 1,9)에는 분명히 188년(= 기원전 12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략 이 무렵에는 야손의 책이 요약된 형태로 꼴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왜 썼나요?

상·하권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일깨우고자 쓰여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민족을 배신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느껴 우상과 이방 관습을 받아들이는 풍토에서, 신앙과 민족을 지키려 목숨을 던져 순교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굳은 신뢰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욥기

욥기는 구약성서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에 속하는 지혜문학의 하나입니다. 욥기라는 이름은 이 책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 이름의 뜻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원전 2000년대 서부 셈족 사이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욥의 고향으로 나오는 '우츠'가 어디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람 쪽이라고도 하고 에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1) 언제 쓰여졌나요?

욥기는 여러 면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힙니다. 욥기의 저술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욥기 안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언어들도 다른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중구난방으로, 멀리 기원전 13세기의 모세 시대부터 가까이는 기원전 2세기의 마카베오시대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의견이 모아지는 쪽은 바빌론 유배 시기 전·후라는 쪽입니다. 아마도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듯이, 상당히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의 복잡한 형성과정을 거쳐 후대에 오늘과 같은 꼴로 굳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누가 썼나요?

욥기는 여타 성경과는 다른 특성을 여러모로 지니고 있어서 욥기의 뼈대를 잡은 저자를 추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마 욥기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남긴 저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견해를 집요하게 추구했던, 유난히 고통과 하느님의 정의에 민감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3) 왜 썼나요?

욥기는 고통에 관해 묻고 도전하고 항의하는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고통은 상선벌악 개념에 따라 이해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받는 벌이 곧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보상적 정의를 가리키는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한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적잖았습니다.

욥기는 하느님의 정의와 함께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욥기의 끝에 가서도 욥이 제기한 물음, 곧 고통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입니다. 문제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고통을 비롯한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 사라져 갑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의 답을 얻을 곳은 영원하신 하느님, 창조주 그분 안에서입니다. 결국 남은 답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뿐입니다. 욥은 하느님의 놀라우신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께 승복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이 바로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시편

1) 시편이라는 성서 이름은 어떻게 생겼나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시편을 ‘기도(트필롯)’라 부르다가 후대에 가서는 ‘찬양(트힐림)’ 또는 ‘찬양의 책’이라 불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찬양하라는 동사(hll)의 2/3 이상이 시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기도와 찬양은 시편의 두 측면으로서 그리스어 성경은 시편이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그리스어 psallo)” 것이라 하여 ‘프살모이(psalmoi, 찬미가)’라 불렀습니다. 시편의 영어 이름(psalms)도 여기서 연유하였지요. 우리 말 성경 이름 ‘시편’은 시모음집이라는 뜻의 중국어 성경 이름 ‘시편(詩篇)’을 따왔습니다.

2) 누가 썼나요?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적지 않기 때문에 시편 역시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애송되었기에 원작가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에도 첫머리에 다윗, 아삽, 코라의 후손, 모세 등의 작품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들의 작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시편은 하느님 백성 전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만, 다윗은 음악을 즐기고 시와 노래로 하느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편의 대부분을 그의 작품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3) 언제 쓰여졌나요?

시편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황금시기인 기원전 10세기와 가장 어려웠던 시대인 바빌론 유배시기 전후에 생겨났다가 대략 기원전 2세기경에 한데 모아져 현재와 비슷한 꼴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오경을 모방해서 시편을 다섯 권(시편 1-41; 42-72; 73-89; 90-106; 107-150)으로 나누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루가 24,44)이라 했습니다. 즉 시편은 그 때까지도 완결되지 못한 성문서를 대표하는 성경으로 꼽힌 것입니다.

4) 왜 썼나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두루 애송하는 성경은 아마도 시편이 아닐까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렸고 어려운 처지에서는 구원을 탄원해 왔기 때문이지요. 비단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드리는 전례에서도 시편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응답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경 전체가 하느님이 하신 큰일을, 예언서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시편은 하느님의 그 일과 말씀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응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큰일들을 체험한 이들은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하느님의 백성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을 “나의 바위, 나의 구원자”(시편 19,14)라 고백했습니다.

잠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첫 구절(1,1; 10,1; 25,1)을 따라 책의 이름을 ‘솔로몬의 잠언들’(미של레 실로모)이라고 불렀고, 그리스어 칠십인 역 성경은 금언 모음집이라는 의미에서 ‘파로이미아이’라 불렀습니다.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프로베르비아’라 이름지었는데, 여기서 영어 이름 ‘프로verb(Proverb)’가 나왔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름 ‘잠언’은 중국어 성경 이름 “箴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잠(箴)은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鍼)’을 뜻하기도 하여, 잠언은 침과 같이 특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유다 전승에 따르면 잠언은 삼천 가지 잠언을 지었고(1열왕 5,12)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진 솔로몬 임금이 쓰고 히즈키야가 편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잠언의 일부를 썼을 가능성은 크지만 전체를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잠언을 쓰고 수집해서 편집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이라고 불리던 ‘서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을 솔로몬 왕의 권위 아래에 둬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우리의 속담이 그렇듯, 지혜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기에 시대적 배경을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잠언도 가정과 부족에서 차츰 생겨난 생활의 지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다가 왕조시대에 들어와 몇 차례에 걸쳐 한데 모아진 것입니다. 특히 외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외국의 지혜문학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솔로몬 시대가 기폭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아진 잠언이 현재와 같은 꼴을 갖추게 된 때는 대략 기원전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짐작되고,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2세기경에 앞의 표제가 붙어져 완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3) 왜 썼나요?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갖가지 금언이나 충고, 권고 등이 중요시되었고, 이런 것이 여러 작품으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메르의 ‘슈룹파크의 지혜서’와 이집트의 ‘아메넴오펫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의 일부가 이 책들의 내용과 비슷한 데서 드러나듯, 이스라엘은 주변국가의 지혜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체험 안에서 그들 나름의 지혜문학을 발전시켰지요.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길이 지혜라고 하면서도 다분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주변국가와 달리, 이스라엘은 지혜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 여겨 신앙과 연결시켰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지혜의 핵심을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파악했던 것입니다(잠언 1,7; 9,10; 15,33).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며 오로지 하느님의 지혜만이 최고 최선의 지혜라는 깨달음이지요.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깨달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택하여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지혜의 글을 묶은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시적인 글로 두 행씩 대구법으로 구성한 것도 잘 기억해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헬렛

‘코헬렛의 말’이라 하여 부르게 된 성경인 ‘코헬렛’의 뜻은 확실치 않으나 대개 ‘회중 또는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도 책의 이름을 회중이란 뜻의 ‘에클레시아스테스(ecclesiastes)’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은 코헬렛을 전도자보다 ‘설교자’(공동번역 성서), ‘교사’(NRSV), 또는 ‘코헬렛’(NAB)으로 옮기면서, 책이름도 그냥 ‘코헬렛’으로 쓰고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코헬렛의 첫머리에는 “다윗의 아들로써 예루살렘의 임금인 코헬렛의 말”(1,1)이라 하여 솔로몬을 저자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성격이나 내용, 사용된 어휘 등을 잘 검토한 결과, 이 책을 쓴 이는 유배시기 이후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한 늙은 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을 이스라엘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의 권위 아래에 둬으로써, 코헬렛이 어느 한 무명작가의 개인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혜전승에 근거를 둔 권위있는 가르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전도서는 유배시기 이후에 나온 후기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사용된 어휘는 페르시아의 아람어와 그리스어의 영향을 짙게 받았습니다. 또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쓰여진 코헬렛의 필사본 단편이 쿨란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기원전 2세기 말에 살았던 집회서 저자가 코헬렛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코헬렛은 기원전 3세기경에, 아마도 기원전 250년 전후에 완성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코헬렛은 헬레니즘 같은 외래사조가 밀려오는 새로운 시대에서 기존의 지혜문학이 지닌 허점을 보완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자주 쓰는 말은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라는 틀입니다. 즉 코헬렛은 실제적인 경험과 냉정한 관찰을 통해 잠언류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지혜의 한계와 단순한 인과응보 논리의 허구성, 세상의 불공평과 왜곡된 현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종말인 죽음에 부딪쳐 좌절해 있는 인간의 갖가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모든 업적과 소유가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한 상대적인 것임을 알려 주지요.

그리하여 코헬렛은 창조주 하느님만이 절대가치를 지니시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니,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의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에 몸부림치면서도 신앙에 매달린 코헬렛에게 궁극적으로 빛과 구원을 던져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가장 노래”(아가 1,1)라는 구절을 따, 가장 뛰어난 노래를 뜻하는 ‘쉬르 하쉬림’, 또는 줄여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은 ‘아스마(노래)’라 불렀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은 ‘칸띠꿈 칸띠꼬룸(노래 중의 노래)’이라 이름지었습니다. 우리 말 성경 이름 ‘아가’는 중국어 성서 이름 ‘雅歌’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뜻 역시 ‘지고하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지요. 아가는 구약성경의 분류 중에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성문서 중에서도 에스델, 룻기, 애가, 전도서 등과 함께 축제 때 입혀지는 다섯 두루마리(축제 오경)에 속합니다. 아가는 6세기부터 파스카 축제 때 봉독되었습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아가서는 곳곳에서(1,1; 3,7.9.11; 8,11.12) 솔로몬을 저자로 제시하고 있으나, 문체와 여러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솔로몬이 많은 노래를 지었다는 전승과 지혜와 사랑의 본보기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여 솔로몬을 저자 이름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성서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쓰여졌을 것입니다. 몇몇 노래는 솔로몬 시대와 기원전 8세기 왕정시대에 쓰여졌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바빌론 유배시대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노래들이 한데 모여져 현재와 같은 꼴을 갖춘 것은 대략 기원전 5-3세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말기부터 그리스 시대 초기에 해당됩니다.

2) 왜 썼나요?

아가는 여덟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파격적입니다. 아무 선입견 없이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뛰어난 한 편의 연애시를 읽는 기분일 겁니다. 더구나 그 표현들이 상당히 솔직하고 관능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 중동의 옛 문헌을 발굴하여 읽어본 결과, 아가의 모티브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신화에서 영향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겨울을 거쳐 봄이 와 계절의 생산력을 높이는 순환과정을, 담무즈 신을 찾아다니던 이쉬탈 여신이 마침내 그를 찾아 연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가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줄곧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가를 이스라엘의 사랑노래 모음집이나 연애극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봄을 기리는 제의적 노래가 수용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아가를 성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계시 역사 전체와 연관시켜 풀이합니다. 아가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사랑과 성, 넘치는 생명력을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로 인식하는 것이지요. 이는 사랑과 성을 신화적인 것으로 보았던 주변 민족들의 성향과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나아가 흔히 혼인관계로 표상되던 하느님과 당신 백성간의 관계를 연인의 관계로 빗대어 표현한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에서 상대에 대한 충실성과 지극한 사랑을 읽으면서 인간 서로간에, 하느님과 인간간에 오가는 사랑의 진실을 여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혜서

지혜서는 제 2경전 중에서 유딧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많고 많지만, 하느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없음을 일깨우기 위해 쓰여진 만큼 지혜서란 책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이 썼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가타 성경과 70인역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1) 누가 썼나요?

솔로몬이 지혜서의 저자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이른 시절부터 의문에 처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리게네스, 유세비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예로니모 등의 교회학자들은 지혜서의 문학적 표현방식이나, 당대에 유명한 사람을 저자 이름으로 내세웠던 관습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저자일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도 누가 지혜서의 저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헬레니즘의 철학과 수사학과 문화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어를 말하는 학식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부분의 내용과 문체가 뒷부분과 다른 점을 들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누어서 집필했을 거라고 여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학자들 간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대략 기원전 220년에서부터 5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70인역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면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집필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아가 “세상 끝까지 통치하는 자들”(6,1)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고, “멀리 살아 군주를 눈앞에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14,17)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또한 필로(기원전20-기원후50)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지혜서에 담긴 언어적인 표현이 기원전 1세기에야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기원전 1세기말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혜서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집필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이교적인 문화권에 사는 동료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믿음에 긍지를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마련이므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을 곳곳이 지켜나가라고 촉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겪는 고통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으로 받아 안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인 왕들은 그에 따른 추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거두면 그만일 뿐인 한낱 인간에 불과한 왕들이 하느님으로 신격화되어 숭배를 받는 일은 가당치 않으므로, 거기에 말려들어 참된 하느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집회서

집회서는 제2경전 중에서 지혜서 다음으로 나오는 책입니다. 집회는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집회서’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한 책이라서, 교회의 책이란 뜻으로 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저자의 이름을 붙여서 “벤 시라의 잠언” 혹은 “시라”라고도 불렸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집회서 말미에 “시라의 아들 예수의 지혜”(51,30)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가 자기 책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예언서를 제외하고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저서에 자기 자신의 소개를 담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서에 소개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벤 시라(=시라의 아들)는 젊은 시절부터 율법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오래도록 명상하고 외국여행도 하면서 쌓은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학교를 열었던 예루살렘의 명문 율사로 여겨집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이 책은 저자의 손자에 의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널리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기원전 18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손자가 “에우에르게테스 임금 통치 삼십팔년에 저는 이집트에 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은 교훈이 담긴 이 책”(머리말)을 번역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하게 집필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우에르게테스는 프톨레마오 7세(기원전 170-116)를 가리키므로, 에우에르게테스 왕 삼십팔 년은 기원전 132년이지요. 따라서 번역자와 할아버지 벤 시라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이 책이 50년 전에 쓰여졌으리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왜 썼나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에 의해서 더욱 널리 퍼진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살면서, 전통신앙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회의하는 유다인들을 붙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계시된 참 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 헬레니즘을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하느님께서 일러주시는 올바른 지혜의 길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인생의 문제들 중 다루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제에 앞서서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이미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책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모아 놓은 것이라 하여 그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 불렀습니다. 이사야란 말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다’ 또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길고 분량도 가장 많아 대예언서라 일컬고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그가 직접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을 적은 책이기에 그를 저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이사야서의 문학양식이나 기술된 내용의 역사적 상황, 문체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이사야서는 두 명 이상의 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사야서는 크게 세 사람 이상의 공동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앞부분(1-39장)을 쓴 이사야, 가운데 부분(40-55장)을 쓴 제2이사야, 끝부분(56-66장)을 쓴 제3이사야가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이사야와 세 번째 이사야 모두 이사야의 후계자로서 그의 정신과 지향을 따랐기에, 이사야를 하나의 통일된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쓴 사람이 셋이니까 쓰여진 시기도 각각 다르겠지요. 이사야는 유다의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왕이 재임하던 기원전 742년경부터 40여 년간 활동했어요. 제2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대략 바빌론 왕국이 멸망할 무렵인 기원전 550년에서 고레스 칙령(기원전 538년)이 내려지기까지 10여 년 동안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제3이사야는 유배에 돌아온 다음, 기원전 530-510년경에 일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작품이 함께 편집되어 묶여진 때는 그 뒤인 기원전 4-3세기입니다.

3) 왜 썼나요?

이사야의 활동시기를 보면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때에 하느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 당신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도층은 인간적 지혜를 써서 외세인 아시리아와 이집트에 빌붙어 살아나려고 했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룩하신 주 하느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만이 삶의 길임을 역설하지요. 하느님의 힘은 엄청나므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일러줍니다.

유다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멸망당하고 유배당했을 때, 제2이사야는 다시금 하느님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와 이집트 탈출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가질 것을 호소합니다. 귀환 후 참담한 현실에 힘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선포한 제3이사야도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며 그분 말씀대로 사회정의의 길을 지킬 때 구원이 도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고, 참된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에 하느님의 평화와 정의가 가득 차고 그분의 영광이 빛나리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이 책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적은 책이라 하여 그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라 했습니다. 후기 예언서 중 이사야, 에제키엘과 함께 분량이 많아 대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예레미야는 대략 기원전 640년경에 아나돗의 사제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기원전 627년에 예언자로 불림받아, 이후 40여 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인 “주님께서 던지다, 급히 보내다”처럼, 그가 활동한 시대에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회개를 호소하며 하느님의 심판을 알렸지만, 결국 귀담아 듣는 이 없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조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아픔을 겪었지요. 뿐만 아니라 조국의 배반자, 거짓 예언자로 몰려 여러 차례 죽을 위험을 겪는 등 예언자로서 개인적인 고통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예언자’, ‘수난의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1) 언제 누가 썼나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제자 바룩입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예언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6,4).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많은 부분이 쓰여진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편집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된 하느님의 말씀임을 깨달은 바빌론 유배시기 때 예레미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들이 그의 말을 수집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2) 왜 쓰여졌나요?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 유다는 동쪽의 신흥 강대국 바빌론의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남쪽에는 비록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인 이집트가 버티고 있었지요. 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지만, 왕과 대신들은 이집트에 빌붙어 바빌론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기에 예레미야는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유다인들의 생활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느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울러 그는 성전과 시온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거짓 믿음과 군사외교적인 정책으로 살 길을 찾으려는 지도층의 자세를 비판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어 들으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고, 이것이 궁극적인 살 길임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새 공동체를 이루시는 희망 찬 미래가 펼쳐진다고 알려줍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느님과 새 계약으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유다 멸망이라는 처참한 역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자세와 생활양식을 되돌아볼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애가

국가의 멸망,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배로 끌려갈 때(바빌론 유배 시기) 유대인들의 비탄을 읊은 다섯 편의 시가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저작이라고들 말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람의 작품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애가는 대참변 앞에 처음으로 고통스런 양심의 성찰을 표현합니다. 당신 백성의 불성실 때문에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둘째 애가).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네 역사를 돌이켜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최대의 신뢰와 희망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은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다섯째 애가: 5,21) 라는 기도로 표현됩니다.

성경상으로는 애가 다음에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의 이름으로 전해져 오는 글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룩보다 몇 세기 후인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룩서

바룩서는 제2경전 중에서 집회서 다음으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책의 첫머리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1,1)로 되어 있어, 그의 이름을 따서 바룩서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집필 관행상 실제의 저자 이름을 밝히기 보다는 다른 유명한 사람이나 오래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책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별도로 전해 내려온 예레미야의 편지도 맨 뒤에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일부 학자들은 바룩 1,1-3,8의 내용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연상케 하는 용어나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전 597년에서 539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이 언급된다는 것을 들어,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집필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와 그 아들 벨사차르”(1,11)라고 그릇되게 제시하는가 하면, 본문 사이에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팔레스티나의 유대인이 따로 전해 내려오던 시편을 모아서 머리말을 붙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6장) 부분도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유배된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차례 편지를 띄웠을 뿐 아니라(예레 29,1-23), 예레미야서와 유사한 어휘나 표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또한 유배 이후의 성서구절에 꽤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깊이나 감수성에 있어서도 예레미야서에 못 미치는 점을 보면 후대의 인물이 작성했을 것입니다.

2) 언제 썼나요?

머리말에 “바룩은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태운 지 오 년째 되던 해, 그 달 초이렛날에 이 책을 썼다(1,2).”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바룩서는 몇 개의 구분되는 내용이 한데 묶여진 것이므로 최종 편집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유배 시기서부터 기원후 70년까지 폭넓게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기원전 200-60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이사야·다니엘·욥기·집회서 등 후기 저작물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묘사되어 있고(3,10), 네부카드네자르와 벨사차르에게 유순하게 처신 하라고 권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는 기원전 540년에서 100년 사이에 원본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바룩서는 다양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의도로 쓰여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희망 아래 외부 권력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말고, 율법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이 책은 예언자 에제키엘이 말과 삶으로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 하여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에제키엘'이라 했습니다. 후기 예언서 중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분량이 많아 대예언서로 분류되지요. 에제키엘은 본래 사독 계열의 사제인 부스의 아들로 태어난 예루살렘의 사제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느님은 강하시다' 또는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그는 바빌론이 여호야킨 왕을 잡아간 일차 유배 때(기원전 598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오년 후인 기원전 593년경 바빌론의 크바르 강가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시드키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여전히 정신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집트에 의존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활동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에제키엘은 예언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아울러 하느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지요. 그는 기원전 571년까지 22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1) 언제 누가 썼나요?

이 예언서의 골격은 에제키엘이 전한 하느님의 말씀인데 아마도 그가 활동하던 시기(기원전 593-571년)에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에제키엘서는 그의 정신과 사상을 잇는 일단의 사제들이(에제키엘 학파) 그의 예언을 시기별로 새롭게 배열하면서 가필하고 보완하여 편집 완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어도 바빌론 유배를 끝내고 돌아갈 때쯤에(기원전 538년) 그 꼴이 완전히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2) 왜 쓰여졌나요?

에제키엘은 바빌론 유배시기를 전후하여 그 전에 활약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맥을 잇고 유배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제2이사야보다는 앞서는 예언자입니다. 다른 동포들보다 먼저 바빌론 땅에 끌려갔던 에제키엘은 남아 있는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동시에 끌려온 동포들에게 야훼신앙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받는 하느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의롭게 생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사제이자 예언자인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온 세계에 미치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각 나라의 불의와 불충을 심판하심은 당신을 알게 하여 당신께 돌아와 바르게 섬기게끔 이끄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에제키엘은 새 마음을 지닌 새 백성들이 당신을 섬기는 새로운 성전, 새 세계를 이루시려는 강한 구원의지를 지닌 주 하느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하여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계약에 충실할 것과 모든 사람과 형제적 사랑을 나눌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으니,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갖고 새롭게 열리는 하느님 백성의 미래에 동참하라는 촉구인 것이지요.

다니엘서

이 책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은 체험과 다니엘의 환시를 담은 책으로 그 중심인물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칠십인 역 성경에서는 이 책을 대예언서로 분류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포함시켜 에즈라서 앞에 놓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 또는 '하느님의 심판자'입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는 다윗의 둘째 아들(1역대 3,1)과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 뿐입니다(에즈 8,2).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배기의 현자였던 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은 옛날부터 현자로 유명했던 전설상의 인물 이름을 빌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욥과 같이 언급되는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예제 14,14; 28,3 참조). 다니엘서는 구약성경에 실린 유일한 묵시문학서로서 신약성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마태 24장; 마르 13장 참조). 묵시문학서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후 100년 사이에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에서 활발하게 쓰여졌던 하나의 독특한 문학유형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갖가지 상징과 환시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 묵시록은 묵시문학의 처음과 끝을 대표하는 성경입니다.

1) 언제 누가 썼나요?

예전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원전 6세기에 예언자 다니엘(마태 24,15)이 썼다고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다니엘이란 고대 현인의 이름을 빌어 기원전 2세기, 즉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기원전 175-164년)가 유다교를 없애려고 하던 마카베오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리스 종교에 대항하여 유다교를 옹호하려 했던 예루살렘 출신의 학자나 서기관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2경전에 실린 네 가지 짧은 이야기는 그 후에 추가된 것입니다.

2) 왜 쓰여졌나요?

다니엘서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벨사차르와 메데의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등 기원전 6세기의 왕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 배경은 유다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는 어떤 희망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처지에서 그 고난의 때,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머지않아 끝나고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차지할 하느님의 나라가 꼭 오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서에서 보듯 신앙을 지켜 순교하느냐 아니면 배교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전해오는 예언과 일화 및 환시 등을 통해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백성들이 늘 깨어 있어 예기치 않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어 당신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굳굳하게 버텨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건 다니엘서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시대를 분별하며 다가오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직하게 신앙을 지켜갈 것을 촉구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책은 호세아 예언자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라 불렀습니다. 호세아서는 12개의 소예언서 중 첫머리에 놓인 책입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북부 이스라엘에서 브에리의 아들로 태어나 예언자로 활동하다 죽은, 북부 이스라엘에서만 활동한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 때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략 기원전 745년경에 예언자로 불림받아 북이스라엘이 멸망(기원전 722/721)당하기 얼마 전까지 20년 가량 예언자 활동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부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비탈길을 내려가는 형색으로 혼란과 불의, 우상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호세아는 자신의 상징적 삶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을 끝끝내 듣지 않은 왕과 백성들 탓에 결국 나라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호세아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 부부간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했기에, ‘사랑의 예언자’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1) 언제 누가 썼나요?

물론 기원전 8세기에 예언자 호세아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기록은 호세아가 죽은 다음에 그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그 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남 유다에서도 그의 예언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서를 편집하여 현재 모습으로 만든 사람들은 남 유다 사람들일 것입니다.

2) 왜 쓰여졌나요?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무섭게 내리누르고 있는데, 약소국 이스라엘은 살아 남으려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도움을 빌려 다니고, 20여 년 사이에 왕이 다섯 명이나 바뀌는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회개의 길을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가 증언하는 주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연인 같은 분이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을 몹시 꾸짖으시다가도, 마치 호세아가 바람난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듯 당신께 돌아오면 너그러이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도,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이 뜻대로 살아가기도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지혜와 슬기를 다해 이를 깨달으라고 촉구합니다(호세 14,10).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그분 안에 머물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이 책은 예언자 요엘이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 하여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요엘’이라 불렸습니다. 요엘서는 후기 예언서에 속하는 12개의 소예언서 중 두 번째에 놓여 있는 성경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예언자 요엘이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또는 ‘주님은 나의 하느님’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했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오직 “프투엘의 아들”(요엘 1,1)이란 소개말 이외에는 달리 언급된 내용이 전혀 없어 그 정체를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엘서를 통해 보면 그는 경신례에도 밝았던 예언자이며, 뛰어난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여러 옛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도 나름대로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날에 이루어질 ‘하느님 영의 강림’을 밝힌 내용은 신약성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사도 2,17-24). 그래서 요엘은 ‘영의 예언자’ 혹은 ‘성령강림의 예언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예언자 요엘이 활동한 연대를 알 길은 막연하만 학자들은 요엘서의 내용과 문체, 어휘 등을 잘 따져서 여러 가지 견해를 제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바빌론 유배 이전의 왕조 시기로 보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유배 이후인 대략 기원전 400년경을 요엘서의 작성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다른 예언서들보다 경신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식과 성회, 사제와 제단에서 시중드는 자, 성전 제사 등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왕이나 북 이스라엘 왕국 및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바빌론 유배 이후 에즈라·느헤미야 개혁을 거치면서 기원전 5세기에 형성된 유다 경신례 공동체의 특성에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3) 왜 쓰여졌나요?

페르시아 시대 말기인 기원전 5세기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쌓고 유다교도 형성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체제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거세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체험한 사실을 들어 ‘주님의 날’을 일깨워줍니다.

메뚜기떼나 가뭄 같은 재앙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요엘은 이것을 보고 다시금 정신을 차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도록 촉구하는 것이지요(요엘 2,27; 4,17). 그는 하느님께서 못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만민에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꿔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전하며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지금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 머물 때,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이 책은 예언자 아모스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아모스’라 불렸습니다. 아모스서는 유다 문학 사상 가장 먼저 쓰여진 예언서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비록 분량이 적어 후기 예언서에 속하는 12개의 소예언서에 속하지만, 다른 예언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예언자 아모스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모스란 이름의 뜻은 ‘주님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남 유다 사람으로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아모 7,14)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난하고 무식한 농부가 아니라 상당한 자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더구나 주변의 국제정세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내 사정에 밝은 걸 보면 그는 꽤 많이 배운 사람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아모스는 본래 예언자 가문에 속하지도, 왕실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텔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뒤, 그는 남 유다로 추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구약의 위경들이 전하는 전설에는 아모스가 베텔의 사제 아마니야의 아들에게 살해되었다, 또는 남 유다의 왕 우찌야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하느님의 현존과 정의를 크게 강조하였기에 ‘정의의 예언자’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한 때는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기원전 786-746) 시절로서 대략 기원전 76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아모스의 예언활동이 끝난 뒤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아모스가 선포한 신탁들을 모으고, 또 자신이 직접 밝힌 자서전적인 내용(7,1-9; 8,1-3; 9,1-4)을 덧붙여 아모스서의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남 유다에서도 영향을 미쳐 유다에 관한 내용이 뒷부분에 덧붙여졌지요. 아마 최종적인 아모스서의 형태는 다른 예언서들처럼 유배기나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3) 왜 쓰여졌나요?

아모스가 예언자로 등장한 때는 북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저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이 위축된 틈에 기를 펴고 살면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북 이스라엘의 부유층은 가난한 동족을 괴롭히는 불의를 자행하며, 자만과 향락 속에 빠져 안일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께 선택받았으므로 그분의 보호를 받아 아무 일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환상을 지니고, 자기식의 예배 행위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평스레 있는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무서울 정도로 엄하고 가혹한 하느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심판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넘어, 하느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실제로 계시며 그분은 정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강하게 일러준 것이지요.

오바드야서

"오바드야의 환시"(오바 1,1)라는 첫머리에서 그 이름을 따 오바드야서라는 이름이 후대에 붙여졌습니다. 오바드야가 예언자의 이름인지, 다른 고유명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오바드야서는 12소예언서의 하나로 구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1) 언제, 누가 썼나요?

오바드야서의 내용으로 추정해 볼 때,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뒤(기원전 587년) 얼마 되지 않아 에돔을 저주하는 부분(1-15절)이 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다음 유배기를 거치고 유다가 회복되면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한 뒷부분(16-21절)이 덧붙여졌을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성경을 지은 이들은 바빌론으로 유배갔다가 유다로 돌아온, 하느님 신앙이 독실했던 무리들 가운데 일부였을 것입니다.

2) 왜 썼나요?

유다와 유다의 동남쪽에 있는 에돔은 서로 티격태격했지만 서로를 형제국가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바빌론이 유다를 처음 쳐들어왔을 때(기원전 597년) 유다와 에돔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가까웠지요(예레 27,3). 그런데 막상 유다가 침공을 받아 멸망할 지경에 이르자, 에돔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에서 제 몫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에돔을 미워하며 그들도 같은 꼴을 당하리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구원은 그런 복수심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가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파국을 겪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한 유다인들은 유다의 정치적인 회복을 넘어 하느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비전을 함께 담아 이 성경을 구성했습니다.

3) 무슨 내용인가요?

에돔에 내린 심판의 선고는 유다인이 아니라 주 하느님께서 직접 내리십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에돔인들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라고 자신들의 안전을 자부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하고 신뢰를 두며 하느님 없이 사는 이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만하는 이들은 형편없이 낮아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무한하기에 모든 인간적인 예상치를 뛰어 넘습니다. 그 날, 주님의 날이 오면, 에돔인들은 그들이 뽐뽐 숨겨둔 재화까지 약탈당하고, 믿었던 동맹국의 공격을 받고 자취없이 사라질 정도로 망해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오바드야는 에돔이 곤경에 빠진 형제 국가를 돌보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비단 에돔과 유다라는 두 나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관계로 엮어진 보편적인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못 민족이 벌받고 유다인들은 다시 회복될 날이 오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유다인 중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지배하는 이는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정의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못 민족에 대한 심판은 하느님의 정의와 영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주님의 왕국"이란 약속을 넘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요나서

요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섯 번째에,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여섯 번째에 나옵니다. 요나서는 12 소예언서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예언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언서는 보통 예언자들의 행적도 간간히 들어 있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 들려 주시는 말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은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3,4).”는 한 마디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전하시는 뜻은 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드러내는 하느님의 뜻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 내용이 요나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어느 왕 시절에 활동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예전에는 여로보암 2세(기원전 787-747) 시절에 활약한 예언자 요나(2열왕 14,25)와 동일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소예언서 묶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연대적으로 보아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예언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사용된 문체로 보아 여로보암 시대의 작품으로 볼 수가 없게 되었고, 더군다나 본문 중에 “니네베는 …… 곳이었다”(3,3)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니네베가 이미 멸망한 기원전 612년 이후에 요나서가 쓰여졌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6-4세기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2) 왜 썼나요?

요나는 자기 민족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라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민족은 그럴 수 없다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시야를 트여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장면서부터 주님을 공경하는 히브리 사람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살던 이방인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곧바로 단식을 선포하며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배움을 입고는 하느님께 탄원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고 행실을 바꾸기로 한 니네베 주민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징벌만을 요구하는 편협하고 옹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웃 민족을 배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물음을 제기하고자 쓰여졌습니다.

미카서

미카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여섯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예언자 ‘미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미카는 ‘누가 주님과 같은 사람인가?’를 뜻하는 ‘미카야’ 또는 ‘누가 하느님(엘)과 같은 사람인가?’를 뜻하는 ‘미카엘’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지요. 하느님은 그 누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이름에서부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유다 임금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카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다(1,1).”라는 내용으로 보아, 예언자 미카가 유다 왕 삼대에 걸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었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카 예언자 혼자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미카가 활동하던 시절인 기원전 734-700년경에 쓰여졌지만, 바빌론에서 포로생활(기원전 587-538)을 하는 중에 후대의 예언자들이 덧붙이고 편집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하였습니다.

미카가 예언활동을 하던 시기는 “유다의 임금 우찌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이사 1,1)에 활동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와 같은 시기지요. 이사야가 귀족 출신으로 궁정에서 주로 활동했던 반면에, 미카는 농촌 출신으로 재야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소농(小農)들이나 가축 사육자들이 억압받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우뚝 솟는 날 만민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미가 4,1-4의 내용은 이사 2,2-4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을 보면, 동시대에 사는 예언자들끼리 어떤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썼나요?

요탐(기원전 747-742)과 아하즈(기원전 742-725)와 히즈키야(기원전 725-697)가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흥한 대제국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공격을 받은 끝에 기원전 721년에 함락당함으로써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는가 하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또한 시리아-팔레스티나의 군소국가들과 연대하여 아시리아에 항거하다가 기원전 701년에 포위당하는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총체적인 위기감이 팽배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시리아에게 충성하는 길이 살 길이라 하였고, 다른 쪽에서는 전쟁에서 진 댓가로 바쳐야 하는 조공이 너무 막중하다며 이집트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항거해 보자고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정치권에 환멸을 느낀 미카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기만 한 지도층들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사마리아가 초토화되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그런 재앙을 겪을지라도 훗날 예루살렘이 민족들의 평화를 지켜내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는 희망찬 전망도 열어줍니다.

나훔서

나훔은 12 소예언서 중에서 일곱번째로 나오는 책으로, 예언자 ‘나훔’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나훔은 ‘위로 내지 연민’이라는 뜻입니다. 대제국 아시리아에 짓눌려 고통을 겪는 유대인들은 니네베가 멸망하리라는 나훔의 예언에서 하느님의 위로와 연민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니네베에 관한 신탁.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1,1).”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나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훔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때에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아직 건재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니네베가 멸망한 직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니네베가 함락당하던 기원전 612년 이전에 나훔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원전 663년에 있었던 이집트의 수도 테베(노 아몬)의 약탈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3,8-10), 집필연대가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663년을 넘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663-612년 사이에 나훔서가 집필되었다고 포괄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연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압제자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구심축이 된 나보폴라살이 바빌론 왕으로 즉위한 625년경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도 하고, 니네베가 멸망한 612년에 근접한 연대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왜 썼나요?

2세기 가람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대제국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에 접어들면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 최후의 위대한 통치자 아슈르바니팔이 기원전 626년에 죽고,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이 기원전 625년에 바빌론 왕으로 즉위함에 따라, 지금까지 아시리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정세가 재편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여러 나라를 잔인하게 정복하고 엄격하게 다스려 온 정책 때문에 아시리아를 극도로 미워해 온 피정복 민족들은 아시리아와 맞서 싸우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바빌론에게서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시리아 제국도 바빌론 및 메대 제국과의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훔은 바로 이렇게 아시리아의 위세가 한 풀 꺾이게 된 국제정세를 지켜보면서, 오랜 세월 강대국에 짓눌려 위축된 삶을 살아야 했던 백성에게 희망에 찬 전망을 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처럼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며 회개할 것을 외치는 대신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의 멸망을 소리높여 외침으로써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아시리아에 대한 미움을 분출시키는 동시에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대제국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주 하느님의 권능을 다시 한 번 높이 천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바쿱서

하바쿱은 12 소예언서 중에서 여덟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예언자 ‘하바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하바쿱은 ‘합바쿠쿠 내지 합바쿠쿠’란 정원식물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예언자 하바쿱이지요. “하바쿱 예언자가 환시로 본 신탁(1,1).” 내지 “하바쿱 예언자의 기도(3,1).”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바쿱서에 반영된 전례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성전의 제의 예언자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2,1).”는 상황도 유배 이후에 성전에서 거주하던 레위인과 사제들의 상황(느헤 13,30; 2역대 7,6)과 비슷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의와 무관하게 환시를 받은 예언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2) 언제 썼나요?

하바쿱서에는 예언자 하바쿱이 활동하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바쿱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침입한 기원전 8세기 말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근동 지역을 점령한 기원전 4세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내가 사납고 격렬한 민족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1,6)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7세기 말 신바빌론 제국이 일어나던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 통치 말기서부터 여호야킴 왕(기원전 609-598) 치세 내지 여호야긴 왕(기원전 598) 시절에 집필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하바쿱서의 연대 추정은 ‘정의’(1,4. 13; 2,4)라든가 ‘못된 자’(1,4. 13; 3,13), 화를 입으리라는 신탁(2,6-20)과 칼데아인들에 대한 언급(1,6)을 바탕으로 추정한 연대라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3) 왜 썼나요?

대제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는 기원전 612년에 메대와 바빌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시리아에 예속되어 온 유다 왕국이 독립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지요. 아시리아 제국이 쇠퇴해 갈 무렵에 즉위한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은 개혁을 통해 유다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닦아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세력이 물러가기가 무섭게 팔레스티나 지역을 넘보고 있던 이집트 왕 느고와의 므기또 싸움(기원전 609)에서 요시아가 전사함으로써, 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세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야킴 시절에는 신흥대국인 신바빌론 군대에 또 다시 점령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지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도 강대국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다 왕국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스바니아서

스바니아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아홉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예언자 ‘스바니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스바니아는 ‘하느님께서 숨기신다’ 내지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린다 해도, 당신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겨 보호하신다는 책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예언자 스바니아입니다. “스바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1,1)이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스바니아가 썼지만, 후대에 첨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스바니아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야의 아들, 그달야는 아마르야의 아들, 아마르야는 히즈키야의 아들이다(1,1).”라고 명시된 족보 내용을 바탕으로, 스바니아는 히즈키야 왕의 후손으로서 기존 정치와 종교권에 몸담고 있었던 개혁주의자였으리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바니아가 왕손이라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기원전 8세기에 활약했던 이사야나 미카 예언 전통을 이어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스바 3,1-3 비교 이사 1,21-23; 스바 3,3-5 비교 미카 3,1-12).

2) 언제 썼나요?

스바니아는 요시아 왕(기원전 640-609)이 다스리던 시절에 예언자로 활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스바니아가 말씀을 받은 것은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아 때였다’(1,1)고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신명기적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는 자들”(1,5 비교 2열왕 23,12; 예레 19,13; 32,29)을 비롯하여, 풍산에 대한 저주 내용(1,13 비교 신명 28,30)이 서로 비슷합니다. 나아가 기원전 622년에 있었던 개혁의 기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스바니아는 요시아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예언자로 등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왜 썼나요?

기원전 8세기에 히즈키야(기원전 715-687)는 산당들을 철거하고 석상들을 부수는 등 야훼 종교를 바로 세우려는 일련의 개혁을 했지만,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히즈키야의 후임자인 므나쎄(기원전 687-642)와 아몬(기원전 642-640) 왕이 혼합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식이 다시 성행하는가 하면(1,4),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경배하고 암몬의 신 밀콤에게 맹세하는 등(1,5) 이교제의가 백성 사이에 널리 퍼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고관들과 왕족들은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남의 나라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가 하면(1,8), 압제와 억압 현상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지요(3,1-4). 이런 상황에서 스바니아는 공정하신 하느님께서 유다 왕국이든 주변 국가든 거만을 떨며 흥청거리는 자는 모두 쓸어 버리겠지만, 하느님의 법대로 살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화를 면하리라고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카이서

하카이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 번째로 나오는 성경으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와 함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수집된 예언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예언자 ‘하카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책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카이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면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기를 촉구하였던 책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을 선포한 연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다리우스 임금 제이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이 하카이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 대사제에게 내렸다(1,1)”고 첫머리서부터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재건이 진행되면서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며 예언 말씀이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1,14-2,1. 10. 20).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하카이 예언자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다리우스 임금 제이년, 곧 기원전 520년이었을 것입니다. 그 해에 이루어진 예언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전해 내려 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가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 옛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나이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2,3). 기원전 515-516년에 완공된 성전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기원전 520년에 선포된 예언 말씀이 518년경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라 봅니다.

2) 왜 썼나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을 함락시킴으로써, 바빌론에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바빌론에서 안정된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귀환하기 보다는 바빌론에 눌러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바빌론에 함락된 채 반 세기가 다 되도록 버려져 있어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바빌론에서 닦아놓은 기반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안정보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사람들도 계속되는 흉작을 겪으면서, 민족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희망은 다 사라지고 오직 생계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1,5-9). 이 때에 하카이 예언자는 사람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자 했습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 식량마저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짓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하느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생활하는 까닭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함을 일깨웠던 것이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세울 때 그 옛날처럼 못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카이가 본격적으로 예언활동에 나섰다 때에는 다리우스 왕의 취임을 기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봉기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이스라엘의 민족국가 수립을 꿈꾸게 해주었습니다.

즈카르야서

즈카르야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한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하카이사서, 말라기서와 함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수집된 예언서 중의 두 번째 책이지요. 예언자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책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즈카르야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 성전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책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1) 누가 언제 썼나요?

즈카르야서는 1-8장과 9-14장이 서로 구분됩니다. 1-8장은 “다리우스 제이년 여덟째 달에 주님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즈카르야 예언자에게 내렸다(1,1)”고 첫머리에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즈카르야가 자신에게 내린 예언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즈카르야는 “베레크야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1,1)로, 바빌론에서 팔레스티나로 귀환한 사제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느헤 12,4.16). 기원전 520년(다리우스 제이년; 1,1.7)에서 518년(다리우스 왕 제사년; 7,1) 사이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9-14장은 구사된 언어 특성을 비롯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신학사상과 역사적인 배경이 다른 것으로 보아, 1-8장을 집필한 사람은 즈카르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도 기원전 4-2세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썼나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빌론을 함락시킴으로써, 바빌론에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서 겪어야 했던 현실은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몇 년째 든 가뭄으로 인해 먹을 식량도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는 성전조차도 폐허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군다나 고국 땅 팔레스티나는 자치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페르시아에서 파견되는 총독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대사제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서 그들을 한데 묶어줄 뚜렷한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족인 즈루빠벨이 총독으로 부임해 오자,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협력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가 도래했음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알리고, 성전이 재건되면 예전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가 곧바로 열의가 사라져서 작업을 그만두려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동시에, 성전 재건 작업을 진두지휘한 즈루빠벨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주 하느님께서 직접 다스리러 오시리라고 촉구함으로써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고자 했습니다.

말라키서

말라키서는 12 소예언서 중에서 열두 번째로 나오는 책으로, 하카이서, 즈가르야서와 함께 바빌론 유배 이후에 수집된 예언서입니다. 예언자 ‘말라키’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책이라, 그 이름을 따서 책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말라키가 사람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말라키’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어느 특정 예언자를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제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3,1).”는 본문의 내용과도 잘 어울립니다.

1) 누가 썼나요?

책 첫머리에 “신탁,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내리신 주님의 말씀(1,1)”에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라키’라고 불리우는 예언자가 썼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말라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사자’란 이름으로 통칭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예언자였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타르굼이나 예로니모는 율법학자며 선비인 에스라일 거라고도 했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뚜렷한 증거없이 제기되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2) 언제 썼나요?

유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미 예식이 거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배 이후 제2성전이 완성된 기원전 516-515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서에 “열두 예언자들”(집회 49,10)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기원전 18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귀환 공동체의 종교·정치·사회 상황과 유사한 것을 들어 기원전 480-500년경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반포한 칙령으로 인해 바빌론 유배지에서 팔레스티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카이와 즈카르야 예언자의 촉구를 받아서 기원전 516-515년에 두번째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는 예언자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배간 유대인들이 물밑듯이 몰려 오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왕국을 재건하리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즈루빠벨 총독은 해임되었고, 성전의 완성과 더불어 도래하리라고 기대하였던 메시아 시대의 징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정국가를 건설한다는 에제키엘 예언자의 이상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인 팔레스티나에서 오직 생존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당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느님께 드리는 경신례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까지도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런 상태에서 말라키는 하느님께서 특사를 보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면서, 이방여인과 재혼하는 등의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지금의 네 복음서는 신약성경 안에 가지런히 모여져 있어 서로 다른 이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처음엔 이름없이 통용되었습니다. 복음서가 처음 생겨날 때만 해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하나의 복음서가 통용되던 시절에는 그저 ‘복음서’라고만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생겨난 복음서가 점차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각 복음서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세리였던 마태오가 기록했으리라는 생각에 그 이름을 따서 마태오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일찍부터 마태오가 복음서를 집필했으리라는 전승이 생겨났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그의 저서 「교회사」에 “마태오는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차례대로 모아 놓았고, 각자는 이를 자기 능력대로 번역하였다”는 파피아스(60-130년경)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130-202년경) 역시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설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에 마태오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의 말로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마태오가 복음서를 집필했으리라는 전승이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사도 마태오가 복음서를 집필했으리라고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날까지 편의상 저자를 마태오로 부르고 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마태오복음서의 분량은 28장이나 됩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이 방대한 작업이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리는 없지요. 실제로 마태오복음은 50-60년경에 쓰여진 예수의 어록과 70년경에 완성된 마르코 복음서를 참조해서 쓰여졌을 것이고, 또한 마태오 교회 안에 전해 내려온 전승들도 한데 모아졌으리라 봅니다. 내용상 유다교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고, 100년경에 쓰여진 디다케(12사도의 가르침)에 마태오 복음서가 인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략 80--90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왜 썼나요?

유다교의 여러 풍습이나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간혹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풀이해 주는 것으로 보아(1,23; 27,33.46), 북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에 인접한 시리아 지방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점차 확립되어 나가면서 유다교와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공동체 성원들에게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바탕을 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는 4복음서의 하나로 마태오 복음서 다음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오 복음서 뒤에 놓여 있지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집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복음서의 형태로 제일 먼저 기록한 관계로, 다른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도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복음서가 일체 없는 관계로 그저 '복음'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서가 생겨나 널리 퍼진 후에는 마르코 복음서만을 가리킬 별도의 이름이 필요했고, 이에 교회의 전승에 따라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의 협력자로 활동하였던 마르코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의 이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마르코복음서의 필자를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은 소아시아(현재의 터키)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빠삐아스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르코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나는 대로 충실히 기록했다는 내용을 요한 원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오로의 1차 전도여행 때 동반하였고(사도 13,5), 또한 베드로의 일행으로 로마에 함께 있었던(1베드 5,13) 요한 마르코가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사도 바오로만의 특유한 사상이나 낱말, 표현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마 사화나 이적 사화의 경우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 그대로 전수된 것이 아니라 당대에 통용되던 그리스 사화 양식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도들을 따라다녔던 마르코를 필자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오래도록 통용되었던 전승을 존중하여 편의상 마르코를 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 언제 썼나요?

마르코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마르코 복음서에는 집필시기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벗어나려고 벌인 독립전쟁(66-70) 말기에 성전이 함락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원후 70년경에 쓰여졌으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예언으로 쓰여졌는지, 멸망 후 사건 보도로 쓰여졌는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3) 왜 썼나요?

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던 여러 가지 전승을 한데 모아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생생하게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던 당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 또한 중요함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

루카 복음서는 마태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3복음서로 부르기도 하는데, 한편 이 복음서는 교회 전승 초기서부터 사도 바오로와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던 의사 루가가 집필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 루카 복음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바오로 사도와 동행했던 루카가 썼으리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기원후 2세기 말엽에 리옹의 이레네오를 비롯해서 200년경의 무라토리아 파편의 기록을 초대교회서부터 의심없이 믿었던 것이지요. 지금처럼 누가 썼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루카 복음서에는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루카 4,38; 5,12; 8,44; 13,11), 마르코를 인용하면서도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르 5,26 비교 루카 8,43).

반면에 바오로 사도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복음서 내용에서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대에 의학적인 전문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글의 품위를 높이려는 문학적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3복음서의 저자를 루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통용되었던 교회의 관습을 존중하려는 의도에서 편의상 루카를 저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루카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희랍어 문장이 아주 정교합니다. 어휘 또한 고전 희랍어에 속한 것이 1/3이나 될 정도로 탁월한 언어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0년경에 쓰인 마르코 복음서와 50-60년에 집대성된 예수 어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70인역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기원후 81-96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호되게 박해받았던 일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암니아에서 바리사이파가 유다교를 재건한(기원후 85-90년) 후에 생겨났던 교회와 회당 간의 반목도 들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대략 기원후 80-85년경에 루카 복음서가 집필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복음서 서두에 나오는 대로, 루카는 시간적, 지리적으로 예수 시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그리스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데오필로를 중심으로 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언행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에 이어 네 번째로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복음서는 교회 전승 초기서부터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이 집필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요한 복음서라고 명명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요한 복음서를 즐겨 인용하였기 때문에 요한 복음서가 정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도적인 전승과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요한 복음서를 이교 집단들에게 잘 알려진 책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와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미심쩍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는 소아시아 일대에서 떠돌아 다니던 풍문을 들어, 요한 복음서가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랑받던 제자가 말년에 에페소에 거주하면서 요한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2세기 초에도 살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덧붙이는 것으로 보아, 이레네오는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과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사제 요한을 혼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학자들은 제베대오의 아들 요한을 요한 복음서의 저자로 보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 잘 짜여진 구성에다 일관된 시각을 지니고 있어 한 개인이 썼을 수도 있지만, 요한계 전승을 형성시켜 온 공동체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사랑받던 제자’를 추종하던 제자들이 집필했으리라고 봅니다.

2) 언제 썼나요?

기원후 125-150년경으로 추정되는 요한 18,31-33. 37-38이 쓰여진 파피루스 부스러기가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기원후 100년경에는 요한 복음서가 집필되어 이집트 전역에 통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 복음서와 무관하게 자체 안에서 예수 전승이 발전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쫓기는 듯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원후 90년 암니아 회의에서 유다교 경전이 확정된 이후인 기원후 90-95년경에 집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3) 왜 썼나요?

요한 복음서의 집필목적은 복음서 뒷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회당에서 내쫓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을 더욱 북돋워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요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언행을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기록한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 담겨 있다 해서 사도행전(使徒行傳)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한 모태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창립과정을 상세히 그려내고 있는 책입니다. 다만 12사도의 활동상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로 사도행전의 앞 부분에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도 바오로의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루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복음서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집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4복음서를 한데 모으기 전까지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두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약성경 중에서 이 두 권에만 데오필로에게 바치는 헌정사가 실려 있어요. 두 책에 사용된 문체나 용어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차이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교회가 창립될 때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일관성있게 보여주고자 한 동일인물에 의해서 기획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바오로를 따라다녔던 의사 루카가 저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만, 편의상 그를 루카복음 - 사도행전의 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신학적인 의도 아래 두 권의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은 80-90년경에 쓰여진 루카 복음서의 후속편으로 대략 95년경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사도, 장로, 부제 등 교계제도적인 모습과 세례, 안수, 성찬 등 원초적인 성사제도가 1세기 말엽의 교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왜 썼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건설되고 성장했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이교도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행전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이 스며들어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커다란 힘을 떨치고 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순조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임을 알려주며, 로마황제 숭배 및 유대인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집필했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로마서는 첫 번째 서간 성경으로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써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1,7).”라는 구절에서 잘 드러나듯,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불렸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사도 바오로가 썼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바오로의 서간들에 비해서 부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후대에 쓰여져서 사도 바오로의 신학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내에서 문제로 삼았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로마 1-4장),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된다는 논증(로마 4장),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서로 대비시킴(로마 5,12-19),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마 12,4-8), 다른 사람의 양심을 고려해서 행동하라는 가르침(로마 14-15장)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했던 사도 바오로의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 서간에 담겨 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아마도 바오로가 제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코린토에 머물고 있던 시절에 이 편지를 집필했으리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다 전한 뒤(15,19), 때마침 예루살렘에 든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서 모금한 것을 가지고(15,26)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린토에서 석 달 간 체류하면서 썼을 것입니다(사도 20,2-3). 바오로가 코린토에 체류한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략 55-57년경에 썼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판도 하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선교해 나갔던 바오로가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이 편지를 집필하던 시기는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주치게 된 적대자들의 공격을 반박하고 자신의 사상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고조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선교 여행을 떠나려 하였던 사도 바오로로서는 앞으로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로마 교회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오로는 각 선교지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코린토서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각 교회에서 생겨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자 편지를 자주 띄웠는데, 그 중에서도 코린토서는 그리스에 위치한 코린토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띄운 편지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둘째 서간 두 통만 전해져 오지만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최소한 4통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분실되었고(1고린 5,9), 두 번째 편지는 후대에까지 전해 내려와 코린토 1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2코린 10-13장에 실려 있는 눈물 편지, 네 번째 편지는 2코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화해 편지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코린토 2서가 두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의 편지를 한데 모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 언제 썼나요?

코린토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제2차 전도여행 때(50-52년경) 그리스에 세운 4개의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난 아퀼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만나, 그 집에 머물면서 천막을 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지요. 사도 바오로는 제3차 전도여행(53-58년경) 중에 에페소에서 27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코린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코린토 교회에 띄운 편지가 코린토 1서인데, 이에 따라 대략 55년경에 코린토 1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 띄우는 것으로 코린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이때는 신도들 중의 일부가 이미 거짓 전도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상태라, 사도 바오로에게 심하게 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2고린 2,5-11; 7,12). 이에 바오로는 속이 상한 채로 에페소로 돌아와 이른바 눈물 편지로 알려진 2코린 10-13장을 티토 편에 띄웁니다. 그리고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기다리다가 티토가 전해 주는 좋은 소식(2고린 2,5-13; 7,5-16)을 듣고는, 이른바 화해 편지로 알려진 2코린 1-9장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토 2서는 57년경에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3) 왜 썼나요?

코린토 교회에 생겨난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린토 교회 신도들이 바오로파, 아폴로파, 게파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행, 소송, 이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 성령의 은사, 모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갈라티아서는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에 답을 주고자 편지를 자주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갈라티아서는 소아시아(=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부에 위치한 갈라티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1) 누가 썼나요?

사도 바오로가 직접 썼습니다. 바오로가 직접 쓴 편지로는 보통 데살로니카 1서, 코린토 1,2서, 갈라티아서, 로마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등 7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나 철라 등 협조자들과 함께 복음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지 교회에 편지를 띄우곤 했지만, 대부분의 편지 내용은 협조자들이 바오로가 하는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지요. 마지막 인사만 사도 바오로가 직접 써보낸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갈라 6,11).

2) 언제 썼나요?

갈라티아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2차 전도여행 때(50-52년경) 소아시아에 세운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바오로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북서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한 터키 남부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소아시아 중부에 있는 갈라티아 지방을 지나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체류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때 갈라티아 지방에 이방인 중심의 여러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갈라 4,13-15).

이어 바오로 사도는 제3차 전도여행(53-58년경) 중에 27개월 동안 에페소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갈라티아 교회에 유대주의를 부르짖으면서 할례를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설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갈라티아 교회로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아마도 54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3) 왜 썼나요?

바오로 사도가 교회를 세운 이후에 들어온 전도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할례받기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공동체 창립자로서 사목적으로 대처하고자 편지를 집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자들 때문에 갈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서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에페소는 서쪽으로 지중해와 접해 있는 소아시아(현재의 튀르키예)의 항구도시입니다.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를 끝으로 제2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올 때 잠시 들르기도 하고, 제3차 전도여행 때에 27개월 동안 머물면서 본격적인 전교활동을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바오로 사도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던 상인들에 의해 로마군 부대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라티아서·고린토 1,2서·필레몬서 등 선교지 교회 앞으로 편지를 왕성하게 써보내기도 하지요.

1) 누가 썼나요?

에페소서 서두에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오로가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1,1)”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를 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편지를 쓰는 차명서한(借名書翰)이 크게 유행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오로의 권위가 막강했으므로, 이 권위를 빌어서 신생교회 신도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편지 내용을 보면 저자는 에페소인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1,15; 2,11; 3,2-6; 4,21). 또한 바오로가 잘 쓰지 않는 어휘만도 100여 개에 달하고, 다른 서신들에 의존해서 논지를 전개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볼 때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언제 썼나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가 로마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62년)에 에페소서를 썼다고 봅니다. 반면에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100년 전에 에페소서가 집필되어 있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110년경에 순교한 이냐시오 주교가 에페소서를 이미 알고 인용했을 뿐 아니라, 62년경에 쓰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콜로새서의 내용이 에페소서에 많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아마도 70-95년경 사이에 에페소서가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3) 왜 썼나요?

사도 시대로부터 점차 멀어지면서 생기를 잃어가던 당대 교회에 교회의 기원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이자 또한 성령의 궁전이지만, 완전한 조직체가 아니라 성장해야 할 조직체임을 일깨우면서 언제나 사랑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서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필리피는 남쪽으로 지중해와 접해 있는 마케도니아(현재의 그리스)의 항구도시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소아시아 트로아스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고는 주님의 뜻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는 확신 아래, 필리피에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합니다(사도 16,6-10). 이후 필리피 교회는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선교 활동을 하는 바오로 사도를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었고(필립 4,10-14), 바오로 사도도 필리피 교회에서만큼은 거리낌없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오로와 필리피 교회 신자들 사이에 오가는 우애가 그만큼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오로와 티모테오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필리피의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봉사자들에게 인사합니다(1,1).”라는 편지 서두에서 사도 바오로가 필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의 친서인지 아니면 후대에 바오로의 이름을 빌어 쓴 차명편지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편지에 담긴 사상이나 언어로 보아,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라고 봅니다. 바오로 사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에 쓴 편지라 그의 특별한 애정이 넘쳐흐릅니다.

2) 언제 썼나요?

필리피서는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서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언제 수감되었는지를 알면 편지의 집필 연대가 명확해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 시 27개월 간 머물렀던 에페소(사도 19,8-10), 팔레스티나의 카이사리아(사도 24,27), 로마(사도 28,16-31) 등 여러 지역에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어느 감옥에 있을 때 필리피서를 썼는지가 확실치 않아 집필 시기를 단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학자들은 에페소에서 55/56년경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보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바오로 사도는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필리피 신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들 안에 계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서는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콜로새는 소아시아(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골로 2,1), 바오로의 동역자인 에파프라스가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 등지에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골로 1,7; 4,12-13). 이들 세 도시는 안타깝게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기원후 60-61년에 일어난 심한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누가 썼나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1,1).”라는 편지 서두를 비롯하여,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4,18)”는 서간 말미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의 친서임이 분명히 확인된 편지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이 87개나 나오는가 하면 문장 길이도 훨씬 길고,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바오로 사도의 친서들에서는 의화와 연결시키는 데 비해, 콜로새서에서는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골로 1,13-14; 2,13; 3,13). 전해 내려오던 종말론적인 언어나 동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가 하면(골로 1,22; 3,4·6·24-25), 자신의 사도직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골로 2,1-2)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학자들은 누군가 사도 바오로의 권위를 빌어서 썼으리라고 봅니다.

2) 언제 썼나요?

골로사이서는 감옥에서 집필한 에페소서·필립비서·필레몬서와 함께 옥중서간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골로사이서를 직접 썼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바오로의 사상이 점차 진전되었다는 전제 아래 사도 바오로가 비교적 뒤에 집필했으리라고 봐요. 골로사이가 기원후 60-61년경에 멸망한 것을 감안할 때, 57-62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봐요. 반면에 골로사이서가 사도 바오로의 친서가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은 사도 바오로가 순교한 이후(64년 또는 67년) 90년 사이에 집필되었으리라고 봐요. 90년 무렵에 쓰여진 에페소서가 골로사이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3) 왜 썼나요?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동역자인 에파프라스가 세운 콜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그릇된 철학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미 전해 받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테살로니카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테살로니카는 에게해 북서쪽 해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기원전 316-315년경에 새로 도시를 건설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이며 필립의 딸이자 카산더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1) 누가 썼나요?

테살로니카 1,2서 모두 사도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공동으로 편지를 썼다는 기록을 편지 첫머리(1테살 1,1; 2테살 1,1)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편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문체와 종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 중에는 편지를 받는 테살로니카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두 편지를 모두 썼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테살로니카 1서는 바오로 사도의 친서이지만, 테살로니카 2서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후대에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썼나요?

테살로니카 1,2서 모두 바오로 사도가 썼다면, 제2차 전도여행(50-52년경) 중에 코린토에 머무를 때에 집필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서의 집필연대는 50-51년경, 2서의 집필연대는 52년경이 됩니다. 하지만 테살로니카 2서를 후대에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썼다면 약 1세기 말경에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테살로니카 1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되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올곧은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썼던 바오로 사도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서간입니다.

3) 왜 썼나요?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에 교회를 세우고 추방당한(사도 16,11-40) 뒤 테살로니카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로 또 쫓겨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연달아 겪으면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거나 앓을까 염려되어 티모테오를 보냅니다(1테살 2,3,1-5). 이어 티모테오로부터 테살로니카 신자들이 굳건히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말을 넘어선 희망과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테살로니카 1서를 썼습니다.

테살로니카 2서가 1세기경에 쓰여졌다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는 분위기가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안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는 배교하는 사대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는 그 날이 오기까지는 현세의 생활에 열심히 일하며 충실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티모테오 1,2서는 신약성경에서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 번째로 나오는 편지로 테살로니카 2서 다음에 위치합니다. 필리피서, 에페소서 등이 각각 필리피 교회와 에페소 교회의 불특정 다수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티모테오 1,2서는 바오로 사도의 협력자였던 티모테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낭독되다가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훗날 신약성경 서간에 한데 묶이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티모테오 1,2서 모두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썼다는 기록을 첫머리(1디모 1,1; 2디모 1,1)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편지에 쓰여진 문체가 바오로 친서와 현저하게 다른 것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오로 주변에 있는 인물이 썼거나 바오로의 권위를 빌어 50-60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썼으리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후대에 바오로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이 썼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티모테오 1,2서에 실린 교회 제도가 초대교회와 다른 것으로 보아, 바오로 사도가 죽은 후 한 세대 이상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냐시오가 117년경에 보낸 편지에는 감독과 장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티모테오서에서는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집필연대를 신앙인들의 2세대(70-100년)로 보기도 하고, 3세대(100-130년)로 잡기도 하는데 아무튼 티도서보다는 조금 늦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왜 썼나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사도 시대나 교회 시대나 늘 한결같음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과거 및 구약성경, 유대인들의 윤리 및 가정규례, 바오로의 사도직과 가르침,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1세기 말 아시아 교회 전역에는 율법 교사로 자처하면서도(1티모 1,7)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정신이 팔려(1티모 1,4)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지하며(1티모 4,3)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2티모 2,18) 이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티모테오서는 이처럼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들과 맞서, 바오로 사도가 전해 준 그리스도교 사상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 로마 철학의 문체와 어휘, 논증방식을 사용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티도서

티도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오로 사도를 도와 복음선교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동반자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할례 요청을 집요하게 받지만, 바오로 사도가 이 요청을 막아주지요(갈라 2,1-10).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바오로의 가르침을 배격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바오로보다 앞서 코린토를 방문하여(2코린 2,13) 자세한 사정을 바오로 사도에게 보고하는 역할(2코린 7,13-14)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티도서에 나오는 '티도'의 모습은 바오로 사도의 유능한 심복이라기보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오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이 둘이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티도서 첫머리에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1,1)”로 되어 있어서 초대교회로부터 오랫동안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으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오로의 다른 편지들에 비해 신학적 용어나 어휘 등이 많이 다른 것으로 보아, 바오로를 따르는 후대의 사람이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티도서는 티모테오 1,2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실린 교회 제도가 초대교회와 다른 것으로 비춰봤을 때, 바오로 사도가 죽은 후 한 세대 이상이 지난 다음에 생겨났을 것으로 봅니다. 티모테오 1,2서는 티도서보다는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티도서가 사목서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냐시오가 117년경에 보낸 편지에는 감독과 장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티도서에는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100년경에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3) 왜 썼나요?

그리스도교가 퍼져 나가던 1세기 말엽은 개척교회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교회 구성원을 격려하고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전수하며, 이단자를 배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사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었지요. 이에 신설된 교회를 맡아 사목하는 이들이 이러한 갖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썼습니다.

4)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디도 1,1-3,15)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티도 1,1)”

티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사목자로서 티도가 크레타 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을 원로로 임명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감독자로 임명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질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도록 신자들을 가르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서는 신약성경에서 열여덟 번째에 나오는 편지로 티도서 다음에 위치하며, 13개의 바오로 서간 중 마지막 편지에 해당합니다. 이 편지는 “아피아 자매와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또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1,2)” 앞으로 띄운 편지라, 맨처음 거론된 ‘필레몬’의 이름을 따서 편지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필레몬서는 에페소서·필리피서·골로새서와 함께 4대 ‘수인서간(囚人書簡)’에 속합니다.

1) 누가 썼나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어요. 골로새서에도 오네시모스와 아르키포스가 언급되는 등(골로 4,9. 17) 유사한 점이 많아 바오로 친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편지에 쓰인 언어나 문체, 논증구조 등으로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바오로가 직접 썼으리라고 봅니다. 오리게네스는 필레몬서를 바오로의 친서로 인정하여 최초로 자신의 작품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바오로 사도가 어디에서 감옥살이를 했는지에 따라서 집필 추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카이사리아, 로마, 에페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에페소 감옥에서 쓰여졌다면 58년경일 테고, 그 외 감옥이라면 이보다 5년쯤 뒤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예 오네시모스가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쳐 숨어 지내기 좋은 항구도시 에페소에 머물다가 바오로 사도를 만났을 것으로 봅니다.

3) 왜 썼나요?

감옥에서 만난 노예 오네시모스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자 자유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도 자유인도 한 몸이기 때문이지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우로서(필레 1,1-25)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간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알리며, 기도할 때마다 필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다고 밝힙니다. 가장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잇기 쉬운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기 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상대방이 주 예수를 굳건히 믿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떠올려 주는 모습도 대단합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언제나 상대방의 단점을 기억하기 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리면서 더욱 밝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부추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에서 사도 바오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스를 주님 안의 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어떤 이유로든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서로 이어주고 부드럽게 만드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히브리서는 서간집에 들어있지만, 서간이라기보다는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간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띄운다는 인삿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개진하는 본문, 그리고 축복과 안부인사를 동반한 맺음말로 구성되는데, 히브리서는 끝맺는 부분에서만 서간 형식을 띠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바오로 서간으로 분류되어 왔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생각에서 ‘히브리서’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다른 바오로 서간과는 달리 누가 썼다는 말이 첫머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자로 거론되어 왔지요. 바오로가 썼다고 보기에는 문체도 다르고,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식도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르나바, 코린토에서 천막일을 하며 바오로를 도운 브리스킬라, 바오로의 동역자인 에바프라와 설라 등의 인물들을 저자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리게네스의 말대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일’이겠지요.

2) 언제 쓰여졌나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95-96년경에 쓰여진 클레멘스 1서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95년경에는 쓰여졌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말씀이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내용(2,3)으로 보아, 60년 이전에 집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0-95년의 어느 시기에 집필되었다고 추정됩니다. 12장 1절 이하에 언급된 시련이 도미티아누스 황제(81-90년) 때 일어난 그리스도인 대박해를 가리킨다고 보아서, 80-90년경에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왜 썼나요?

12,1 이하에 언급된 시련이 도미티아누스 황제(81-90년) 때 일어난 그리스도인 대박해를 가리킨다고 보면, 박해로 불안해 하며 배교의 위기를 겪는 이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연륜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모임에 자주 빠지고 선행과 봉사생활에서 멀어지는 등 나태한 신앙 행태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여 순종하도록 촉구하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드러난 구원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로운 약속을 일깨워주면서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신앙을 간직한 채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서간

야고보 서간은 공동(catholic)서간에 속하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13개의 바오로 서간은 모두 편지를 받는 개인이나 교회 앞으로 쓰여졌지만, 공동서간은 이 편지를 받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편지를 썼는가만 첫머리에 밝혀져 있습니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세상에 흠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합니다(1,1)”는 내용에 따라 ‘야고보서’란 현재의 책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야고보서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한 최초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이 서간의 저자를 단순히 ‘야고보’ 또는 ‘야고보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사도 15,13; 21,18)며 “주님의 형제”(갈라 1,19)로 여겼지요.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고 1,1)이라고 야고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야고 1,25)을 지키라는 권유가 유다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야고보(사도 15,13-21; 21,18-24)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죠. 나아가 사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설교와 문체가 서로 비슷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티나의 기후현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야고 5,7)라는 언급도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간에 쓰인 그리스어 문체가 갈릴래아 농부 출신치고는 너무 유창할 뿐 아니라, 주님의 형제로 오래도록 생활해 온 것에 비해서는 예수 자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행동을 다루고 있음이 의아하다는 점을 들어, 익명의 저자가 야고보의 이름을 빌어 집필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야고보서의 집필연대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면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집필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페스도와 알비누스가 유다 총독으로 이취임하던 62년 또는 베스파시안 황제가 팔레스티나를 점령해 들어오던 67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만일 야고보서가 차명서한이라면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가 집필 연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왜 썼나요?

교회는 지역상으로도 도시와 농촌에 걸쳐 있고, 직업상으로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김새나 차림새를 보고 박대하거나, 선행은 뒷전에 밀쳐놓은 채 믿음만이 최고라는 환상을 갖기 쉽지요. 이에 야고보는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일러주고자 이 서간을 집필했습니다.

베드로 서간

베드로 서간은 야고보서, 요한 1·2·3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catholic)서간, 또는 가톨릭 서간으로 불립니다. 바오로 서간과는 달리 수신인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교회에서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서간 머리말에 ‘베드로’가 편지를 띄웠다고 언급되어 있어서 베드로 서간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1) 베드로의 첫째 서간 구성

인사, 본문, 끝인사로 되어 있고, 본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신앙인의 신원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하느님 백성인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특히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하나는 공동체 안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인이 겪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신앙인이라는 소명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는 ‘신앙인이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통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모습은 무엇보다 ‘성부’ 하느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구원의 토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인이 새로 태어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실 뿐 아니라, 신앙인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베드로의 둘째 서간 구성

인사, 본문, 마지막 당부로 구분합니다. 본문은 다시 셋으로 나누는데, 제1부에서는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다루고, 제2부에서는 거짓 교사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구약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단죄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최후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제3부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그분이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신앙인들은 늘 그것을 위해 주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하느님 말씀의 진리를 독자들에게 기억시키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며,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권고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종말론과 윤리와 하느님 말씀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시어 모든 이를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고 밝히고, 신앙인들에게 성경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요한 1,2,3서

요한 1·2·3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1,2서, 유다서와 함께 공동서간, 또는 가톨릭 서간이라 불립니다. 수신자를 특정 인물이나 교회로 한정시키지 않아서, 여러 교회에서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는 교회 전승으로 말미암아 요한 1·2·3서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정확히 알 수 는 없습니다. 요한 1·2·3서를 동일 인물이 집필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이 집필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꽤 많지만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 2·3서는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하는 인사말이 거의 같아서 동일저자가 집필했거나, 아니면 요한 2서의 저자가 요한 3서를 모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지 않은 데다가 어휘와 문체와 사상이 요한 복음서와 비슷한 면이 많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썼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아무튼 요한 서간도 요한계 학파에서 생성된 서신들로 보고 있습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요한 1·2·3서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요한 복음서가 쓰여진(90년경) 이후 영지주의가 퍼져 있었던 약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요한 1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며(2,22-23) 예수의 육화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가 110년경 아시아의 교우들에게 예수의 가현설(假現說)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편지를 보내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당시 요한계 교회에는 예수의 육화를 부인하며(2요한 7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반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생겨나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많은 신자들을 현혹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생겨났습니다(1요한 2,18-19·22-23; 4,2-3). 심지어 어느 지역교회에서는 원로가 써보낸 서간을 무시하고(3요한 9절) 원로가 파견한 순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원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도 생겨났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의 신앙이 정통 신앙인지를 가늠해 보라는 지침을 내리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절대 선이라고 믿으면서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또 예수는 인간이면서 온전히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들임을 믿는지 점검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더불어 이단자들의 그릇된 사상에 동조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유다 서간

유다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1,2서, 요한 1·2·3서와 함께 공동(catholic)서간, 또는 가톨릭 서간이라 부릅니다. 수신자를 특정 인물이나 교회로 한정시키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공동으로 읽어볼 수 있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첫머리에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썼다는 언급이 나와 유다서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 누가 썼나요?

편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마르 6,3; 마태 13,55)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야고보란 말을 쓸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보다 후대의 사람으로(17-18절 참조) 유다의 이름을 빌어 집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작품을 내는 것이 당대의 집필관행이었음을 감안하면 말이지요.

2) 언제 쓰여졌나요?

유다서의 집필연대는 50년경에서부터 2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부분이 많다는 근거를 들어 초기 연대를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비판하는 이단자들은 요한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니콜라오스파(묵시 2,6)라는 가정 아래 집필연대가 후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 유다 서간 구성

머리말, 본문, 권고와 찬송으로 구분합니다. 본문 대부분이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에는 신앙인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권고합니다.

유다 서간은 신학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몇 가지 주제가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가장 눈에 띄는 메시지는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라고 초대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길을 세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신앙인이 어떻게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요한 묵시록

요한 묵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유다서 다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2·3서와 함께 요한 공동체에서 쓰여진 책들로, 요한계 문헌으로 분류됩니다. 사도 요한이 집필했다는 교회 전승에 따라 요한묵시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 누가 썼나요?

요한 묵시록 첫머리를 보면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묵시 1,1-2)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교부 대부분은 이 요한이 복음서와 요한 서간들도 쓴 사도 요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 문헌 전체의 저자라고 보지 않고, 요한계 문헌이 전해 내려온 공동체에 속한 서로 다른 저자들이 집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 묵시록은 문체나 성격이 복음서나 서간들과는 현저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묵시록을 집필했다기보다는 바르나바의 동역자인 요한 마르코(사도 15,37-39)나 원로 요한(2요한 1절), 잘 알려지지 않은 요한이라는 사람 내지 사도 요한의 이름을 빌은 익명의 저자가 집필했을 거라고 봅니다.

2) 언제 쓰여졌나요?

요한묵시록의 집필연대는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대교회 저술가들은 도미티아누스(81-96)가 다스리던 시절에 기록되었으리라고 보는가 하면, 후대의 저술가들은 클라우디스(41-54), 네로(54-68), 트라야누스(98-117) 황제 시절에 집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현대 학자들 중에는 베스파시아누스(69-79) 시절로 잡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도미티아누스(81-96) 통치 시절에 집필되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왜 썼나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스스로 ‘신이요 황제’라 자처하였고, 곳곳에 황제 신전을 지어 참배하도록 하면서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언급되는 복음(유앙겔리온)은 당대에 태자 탄생과 같은 황제의 근황을 알리는 소식을 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복음으로 삼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됩니다.

이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교하거나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주목해 온 요한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환시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어린 양임을 일깨움으로써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복돋우고자 했습니다.